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帝國經濟會議는 總務廳上位機關

委員에는 閣僚級의 人材任命

產業政權確立을目的

【東京電話同盟】國策綜合統制機關으로서의 總務廳及 帝國經濟會議를 合한 中央行政機構改革에 對하여는 十二日四相會議에서 大綱을 決定하고 直時法制局에 具體的立案을 命하엿는데 四相會議에서 가장苦慮하고잇는 點은 帝國經濟會議(假稱)의 構成으로 이具體化에 當하여서는 過去의 內閣審議會와 調査局과 如한 關係가될것을 極力避하려고 하고잇다 卽 帝國經濟會議는 널리 內鮮滿의 經濟產業政策의 確立을 目的으로 하고 首相의 最高諮問機關으로 委員에는 閣僚級의 人材를 任命하야 實質上으로는 總務廳의 上位機關으로 하려는것이다 經濟會議의 組織要項은 大體 左와 如하다

一、經濟會議議長은 總理大臣으로함
一、副會長은 一名으로하고 經濟會議委員中에서 任命함
一、委員의 數는 十五名內外로하고 我國經濟產業界의 有力者로서 充當함
一、總務廳總裁는 常任委員으로하고 幹事長을 兼任함
一、經濟會議에 若干名의 幹事를 置함(內定된 사람으로는 大藏省 農林次官 商工次官 遞信次官 拓務次官等이다)
一、總務廳企劃局은 經濟會議의 庶務를 掌함

勅選四名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再開議會前에 勅選四名을 補充하게되어 十二日의 閣議에서 如左히決定하엿다

小野寺長治郞 深井英五 下村宏 吉田茂

貴族院令 第一條第四號에 依하야 貴族院議員에 任함 (各通)

繼續委員會設置 政府側贊成意向

議會閉會까지에解決?

【東京電話同盟】政黨方面에서 要望되고잇는 議會閉會中 繼續委員會를 設置함에 對하야는 次田法制局長은 十二日樞府의 議院法改正案審査委員會에서 顧問官의 質問에 對하야『繼續委員會에 附議할것을 適當타고 認하는問題가 發生한時는 크게 活用하고십다고 思하고잇다』고 述하야 政府의 方針을 明白히 함에 이르럿슴으로 從來 悲觀되든 同委員會의 設置는 자못 有望視하게되엿다 特히 今議會에는 電力問題 義務敎育延長問題等 重要問題가 山積하고 四圍情勢로보아 審議未了의 公算가 濃厚한만큼 一部에는 議會後議院法의 規定을 活用하야 繼續委員會를 設하고 此等條件을 附託審議 繼行할것도 考慮되고잇는데 政府及政黨이 重要問題를 如何히 取扱할가 그問題도 關聯되고 同委員會의 設置는 今後 兩者間의 妥協도 促進되고 議會閉會까지에 何等의 解決을 보게될것이다

東宮傳育官 增員任命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압서는 今春赤坂御所內의 東宮假御殿으로옴기실 御豫定임으로 이에伴한 傳育官의 增員은 宮內當局에서 일즉부터 研究中이든바 十三日 左와如히 兩氏가 任命되엿다

從五位 子爵 東園基文
山田康彥
任東宮傳育官(七等、各通)

이로서 東宮傳育官은 新任한二氏를 加하야 石川、小出傳育官과 都合四氏가되는셈이다

貴革調査會開會 四月까지無望

【東京電話同盟】貴族院制度改革에 關하야 政府는 議會以來아즉 一回도 調査會를 열지안코 자못 熱意를缺하고 잇슴으로 貴族院의 一部에서는 議會再開前卽二十日頃調査會를 開催하야 審議促進을 企圖할것이라고 要望되고잇는데 右에關하야 廣田首相은 藤沼書記官長 次田法制局長等과 協議한結果 議會再開會도 切迫되고 議會에 提出할 議案의 審議立案 其他諸準備에 忙殺되고잇슴으로 議會休會再開前에 調査會를 開催함은 事實上不可能하고 또議會中은 勿論열지안키로 意見一致되엿다 依하야 同調査會는 四月의 議會閉會後로 너머가게되고 現內閣의손에依한 貴革은 全然希望이 稀薄하게되엿다

領土的野心업슴을 『히』獨總統이言明

駐獨佛大使의歸國報告內容

英政府、그實行을注視

【巴里十二日發同盟】駐獨佛蘭西大使 폰세氏는 十二日午前 伯林으로부터 巴里에到着 直時 外務省에 赴하야 델보스外相及 비에이쓰官과會見、西班牙를 圍繞한 國際情勢及 獨逸의 態度에 關하야 重要報告를 爲하얏다 그런데 報道함에 依하면 폰세大使는 佛國의 獨逸、佛蘭西經濟提携案이나 獨逸、佛蘭西國交調整案과 如한것은 持來치안햇다고 傳해진다 폰세大使는 델보스外相에 對하야 히틀러總統이 十一日 新年外交團接見式場에서 폰세大使에 對하야 獨逸은 西班牙本國及 모로코에 何等領土的野心이업다는 旨를 言明하얏다는 事實을 報告하엿는데 奇怪한것은 獨逸政府는 右에關하야 何等公式發明을 發치안흘뿐아니라 十二日의 獨逸各新聞은 히틀러總統의 言明을 報道한 佛蘭西新聞을 攻擊、西班牙領모록코를 征服코저하는 佛蘭西의 野心을 隱蔽코저하는 僞善的言明이라고 부르지저 히틀러總統의言明은 一言도 報道치안코 오즉 하ー게불르는紙가 佛蘭西의하바스 通信社報道라고 傳하얏슬뿐이다 佛蘭西朝野는 獨逸新聞의 態度를不快視하는同時에 獨逸政府의 態度에疑念을抱懷하고잇다

【倫敦十二日發同盟】히틀러ー總統이 佛蘭西大使폰세氏에게 獨逸은 西班牙及西領모록코에 何等領土的野心이업는旨 言明하얏다는 報道는 英國에多大한 好感을 與하는同時에 緊迫하얏든 政局의 空氣도 大端히 緩和되엿다 그리고 十二日의 全體閣議가 外交問題를 討議하고 內政問題를 먼저한것도 這間의 消息을 말하고잇다 그러나 政府는 獨逸의 態度에 關心을 不忘하야 口頭의 約束을 實行에 옴김을 기다리고 잇다 유스크로니클紙는 十二日의 紙上에서 政府의 態度로 如左報道하얏다 政府는 獨逸이 今後更히 信賴함에 足하는 平和의 要素인 事實을 보힘을 기다리고 잇다 眞實로 히틀러總統이 口頭의 約束을 實際으로써 보임을 表明하면 歐洲의 和平에 一層貢獻이될것이다

駐英蘇大使『마』氏 國際共同動作을提議

西叛軍軍艦의海賊行爲防止에英參加要請

英國은參加拒否方針

【倫敦十二日發同盟】倫敦駐箚蘇聯大使마이스키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十一日午後英國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야西班牙叛軍軍艦의 海賊行爲防止의 國際共同動作에 英國의 參加를 要請하엿는데 蘇聯政府는 數週間前콤소몰號의 擊沈事件이 잇섯든直後와 同樣의 提議를 行하엿는데 英國政府는 이러한問題는 一括하야 不干涉問題에 關한것임으로 有效한 不干涉監視制度가 確立되면 海上事件과如한것은 自然解消된다는 主張下에 蘇聯의提議를 拒否할 方針으로뵈인다

獨佛關係緩和

모록코에獨軍업는事實確認

쌰하트博士巴里訪問

【巴里十三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는 過般來歐州政局의『全般的處理』原料資源及 植民地要求를考慮할用意가잇는 旨를 非公式으로 獨逸政府에 通達하고 伯林駐箚佛國大使 폰세氏를 通하야 交涉을 거듭하여왓는데 同大使는 十二日 巴里에 歸還하고 그代身 巴里駐箚 獨逸大使 웰치伯이 伯林에 歸還한結果 獨佛兩國間의 交涉은 드듸여 具體化함에이르렷다 히틀러總統은 폰세大使에 對하야 西領 모록코植民地에 손을안댄다는 公約하고 또佛國政府가 數回에亘하야 調査한結果 西班牙領모록코 植民地에獨逸軍隊가現存하고잇지안은 事實이確認되엿슴으로 兩國間의 不穩한空氣도急速히緩和됨에 이르럿다 以上의情勢를본結果 쌰하트博士는 巴里萬國博覽會獨逸館定礎式參列名目下에 드듸여 近日巴里에오게되엿는데 博士는植民地再分轄論의急先鋒이오 經濟上으로히틀러總統의代辯者인만콤 巴里에서의折衝結果如何는 歐洲政局에重大影響을줄것이다 그리고 英佛兩國政府는 經濟資源을 開放하는 代償으로 獨逸政府의 孤立經濟政策과 兩軍備擴張을 放棄하고 民主主義諸國과 協力할것을 要求하고잇슴으로 交涉結果에큰 期待를가질수는업다 또外務省當局은 쌰하트博士의 訪問에對하야 一切言明을 避하고잇는데 巴里外交界는 博士의 動靜에對하야 다음意向을말하고잇다

佛國官憲이 現地調査를한結果 西班牙領모록코는 獨逸義勇軍은 업는것이 確認되엿슴으로 獨佛兩國間의 空氣는不少히 緩和되엿슴은 事實이다 但히틀러總統이 充分한 政治的保償을 與하지안는限 英佛兩國政府도 獨逸政府에對하야 完全한 經濟的援助를 與할수업는것이다 經濟的再建에對한 援助가 獨逸政府의 軍事的野心을 助長하는結果가 되여서는안될으로 英佛은 當然히 要求할터로 이保償을 與치안는限 쌰하트氏가와도 完全한 協定成立은 期待할수업다

滿洲國各會議에 「옵저버」를派遣

總督府에서目下銓衡中

朝滿一如의 政策實施와 相互間 實情視察을 爲하야 南總督은 就任以來 朝滿兩國間 相互間 옵저ー버를 交換하여왓는데 滿洲國에서는 來二十二日부터 二月六日까지 連續的으로 各省長會議、總務司長會議、警務廳長會議等이 開催되게되어 最近同國政府로부터 總督府에 對하야 正式으로 옵저ー버派遣案內狀을보내여왓다 總督府에서는 昨年以來 各局課長의 滿洲視察을 行케하고 本年度內에 全部의 局課長으로 滿洲視察을 終了케할豫定으로 아즉 그實行을 못한局課長도 相當히 多數에 達하고잇스므로 이機會에 視察兼前記各種會議에 參列케하야 相互認識을 深케하기로하고 目下 人事課에서 派遣局課長의 銓衡을 急行하고잇다

汪精衛氏 上海로向發

【香港十二日發同盟】今朝香港에 到着한 汪精衛氏는 香港總督칼데드氏의 歡迎宴을 辭退하고 故胡漢民氏의 墓에 拜參키爲하야 廣東行을 中止하고 十二日午後六時포ー소丸으로 上海로 向하엿다 中國側의 [illegible]

朝鮮大豫算의 無事通過祈願

渡東을압두고 大野政務總監談

大野政務總監은 第七十議會政府委員으로 出席키爲하야 十三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發『아까쓰끼』로 渡東하는데 渡東을 압두고 左와如히 말한다

今回의 渡東은 四月까지에는 못도라오는데 四億一千六百萬圓이라는 大豫算이 議會를 無事通過하도록 努力할려고 한다 그런것은 모르겟다 오즉 朝鮮豫算이 無事成立되기를 願할뿐이다 總督府의 追加豫算은 가솔린稅增徵에 伴한것其他若干은잇스나 別한것은업다

▲松岡滿鐵總裁가 明日에 온다는데 大村副總裁가 日本에서 올으로 偶然히 京城에서 맛나게되엿스니 總督과도 會見하고 經濟的朝滿一如의 實現을 爲하야 意見交換이잇슬모양인데 別로 特別한問題도업고 羅津의 都市計畫遂行에對한 滿鐵의 積極的進出에對한 具體策等에 關하야 이야기가잇슬지도모르나 新年度부터 直時着手케되고잇슴으로 朝鮮으로서는 實로 고마운일이다

▲茂山은 埋藏量五億噸이라고하엿섯는데 只今은 十億噸이라는바 더욱더 커저서 朝鮮의他의모든鑛山을 合算한것보담도크다 實로훌륭한鑛山이라고다시금놀낸다 이開發에對하야는 一層힘을드려야될터로 着着計畫을進行하고잇다

서도 크게 希望하는바로 實現되는날은 깃버參加할 생각이다 그러나 議會中은 잘안될터임으로 된다하여도 相當히 뒤에될것이다

▲林業開發會社는 될수잇는대로 速히 決定하야 이議會에 配當補償 或은 單純한 補助로하든지 追加豫算을 내지안코면 會社創立도 一個年늣저질터로 拓務省의 意向도드러 될수잇는대로 速히決定하려고 생각한다

▲起業金融會社의 問題에 對하야는 議會中에 여러가지 意見을 交換하여볼터인데 大藏省은 法律案三十餘件을 가저 朝鮮일이 留意될지 안될지 모르나 朝鮮으로서는 엇더한 形式으로라도 빨리解決코저한다

▲西鮮合同의 山本君이 退職하고 그後任을 中心으로 官界의 異動이 傳하나 아즉은 모르겟다

八面鋒

◇ 布哇在留同胞로부터 水害罹災同胞를爲하야 衣類二千餘件을 보내여왓다。

◇ 二千點의옷에 二千萬의피ㅅ줄이 얼키엇다 입어맛이아니라 바더 눈물나는일。

◇ 釜山埠頭 三百勞働者가 物價騰貴로 살수업다고 賃金引上을 要求。

◇ 物價의高하가는것은 昨今의大勢、賃金乃至俸給生活者의困難도事實。

◇ 이때에 社會的으로생각한다하면 生活費를 올려주어야할것은當然。

◇ 그러나 雇主에게 이러한雅量이잇슬가、當局者의愼重한一考가必要할일。

軍部關係兩法案

防空法軍機保護改正法律案

今議會提出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軍部關係議會提出法案에 對하야는 關係諸當局에서 折衝을 遂한結果 多年懸案이던 防空法、軍機保護法改正法律案의 二案을 提出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目下細目을 研究中인데 兩案의 骨子는 如左하다

一、防空法(內務省提出)

本案은 昭和八年以來研究하여왓스며 實際訓練으로서는 이미數次의 演習에 依하야 消極的防空準備에 相當한 效果가 認定되여 地方長官會議等에서도 여러가지 要望이 잇섯슴으로 內務、陸、海軍、遞信、鐵道各省에서 愼重히 協議한結果 內務省에서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本法은 防護防毒、燈火管制의 平時軍備及 訓練과 戰時事變等의 緊急한때의 防空에 關한 諸規定을 定한것인데 歐米에서는 이미 實現되고잇는것이다

一、軍機保護法中改正法律案(陸海軍共同提出)

現行法은 明治三十一年에制定된것인데 近代戰의 要求하는바와 時代에떠러지고잇슬뿐아니라 가、機密事項이 不明確함으로 國民이不知不識中에 犯하는傾向이잇슴 나、刑의量定이너무寬大한等의重大缺點이 認定되엿스므로 今回 그改正을企圖하고 陸海軍共同提案으로된것인데 國際情勢의 逼迫에 鑑하는 스파이襲擊에 備하고자하는 軍部의動向을 表示한것이다 또軍部는 國際스파이戰이 猛烈한現狀에鑑하야 國防上 機密保護의 完璧을期하는 見地로부터 前議會에서 審議未了된『國家總動員秘密保護法』의 再提出을 要望하고잇스며 資源局에서 研究中이엿섯는데 如何튼지 進展을 뵈여줄것이라고 期待하고잇다

000763

鴨綠江共同委員會

十三日總督府서開催

昨十二日 正式調印을 終了하야 解決을본 朝滿兩者의 鴨綠江共同技術委員會는 朝滿兩者의 委員人選도 決定되엿슴으로 今十三日午後二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第一回委員會를 開催

▲總督府側
委員長 大竹內務局長
委員 榛葉土木課長
同 岡田遞信局海事課長
幹事 坂本土木課事務官
同 松崎遞信局海事課技師

▲滿洲國側
平井出 交通部總務司長 蒲尾同部工務科長 島崎安東航政局總務科長

其他出席 初人事를하고 뒤에 會議의 規定에 基하야 會長의 選任陣容을 決定하고 幹事 事務員及技術員을 設置 議事進行順序等을 協議한後 드듸여 鴨綠江水路開發에 關하야 朝滿兩委員으로부터 具體的意見의 開陳이 잇섯다 問題의 處理에 當하야서는 朝滿一如의 大乘的見地에 立脚하야 이의解決을 圖할것을 强調하야 爲先當面의 問題로잇는 航路의 確定航行船舶의 統制等에 關하야 隔意업는 意見의 交換을 行하얏다 이리하야 委員會는 爲先終了하얏는데 今後는 安東或은 新義州의 現地에서 具體的問題에 對하야 開催、이의 處理解決에 當할 豫定이다

大野政務總監渡東

議會에政府委員으로出席次

大野政務總監은 議會에政府委員으로 出席次 十三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아까쓰끼』號로渡東하엿다 四月初旬까지東京에滯在케될모양이다

人事·集會

▲徐仁鎬氏(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敎員) 十二日午後十一時 樂花町二〇〇番地自宅에서 喪配

▲金殷鎬氏 安熙英孃과 來十六日午後一時 明月館에서結婚式擧行

てんかん 癲癇血 變へ 挫 贈生錄(呈) 無代進呈 富吉榮作

巡查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手藝文化刺繡材料 文化堂 振替京城二五二四三番

分讓 果樹苗木 京城府外纛島 久次米園藝場

Columbia 情熱의嘆息

朝報案內 新發明 萬年印 牛年

毛絲萬能手編機械

今番內地製造元カラ家庭用又ハ副業用ニ理想的毛絲手編機械普及ニ對スル依賴ガアルノデ調査ト試驗ノ結果從來ノ他品ニ比シテ顯著ニ優良ナルコトガ認メラレコレガ普及上取扱所ヲ一道ニ一個所ヅツ設置スル豫定ニ付キ希望者ハ申込アレタシ

京城府蓬萊町一ノ二三 朝鮮副業協會 電話本局二九六〇番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 一回一個服用 김질藥은 本オヂリン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

スキー ポマード 艶出し

모로히루네 모나ー루 福 MONAL FUKU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英語通信研究會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資本金參千萬圓

小作關係의不安

昨年中受理된調停申立件數가 再昨年에比하야千七百件增加

磨擦點은地主의橫暴

조선농촌의 최대의 문제로되여잇는 소작관계의 불안(不安)상태는 아직도 완화될 긔맥은업시 더심각하여가고잇다 그사정이표면화한결과로 총독부법무국에서 조사한 소작조정신립(調停申立)상황을 보면 재작년중은 칠천사백사십사건이든것이 작년은십일월까지의 통계가 구천일백구십일건으로 일천칠백여건이나 증가되엿다 그리유로는작년삼월부터 소작조정령의 개정으로 종래한의재판소에만 제출할수잇든조정신립을 단독재판을하는지청(支廳)에서도 수리할수잇게되엿거도 잇스나 그만큼농촌은 소작관계의 사정이 불안하여졋슴을 알수잇다 주작년중의 조정건수를 보면 총수리건수구천일백구십칠건과, 전년에서넘어온것, 삼백구십칠건에 대하야 조정재판을 하게된것, 삼일칠건, 조정성립, 삼백팔십오구건, 조정불성립일백구십삼건, 각하(却下)삼십칠건, 취하(取下)사천삼백구십삼건이다 그런데 소작조정의신청은 거이전부가 소작인측의 신립이요 그리유가 또한 대부분 소작계약의 해(解)가 성립된것이다 그런 특권인데, 취하한것은 약백건을 제하고모다 소작위원회에서 권연곡, 또는계속, 소작권의회복、또 소작권회복이농이고 소작료의 감면은 극히적다 이사정으로보아 아직도 조선농촌에는 지주들이 소작인의권리를 리해치못하고 소유권(所有權)만을 주장하고잇는 정세에잇다는것을 알수잇다 그러나 작년까지에 그처럼소작조정사건이 만흔사정을 미루워본다면 그동안내면으로 문제중에 잇든것은 대부분 조정사건으로 표면화하여 법의재단을 밧게되엿슬것이라고 판측도 가능하야 금년부터는 종래보다 조정사건이 더만허지지는 안흐리라고도 관측되고잇다

南朝鮮合同電氣 本社의位置는 重役會에서決定

二十一名重役을六社에配定 十二日에合同準備委員會開催

남조선전긔합동문제에 대하야는 발서작년팔월에 합동결정을본이후 그동안 상당히 복잡다단한 경과를보이고잇던바 드듸여 십이일부터대구(大邱)목포(木浦) 대전(大田)천안(天安)부산(釜山) 군산(群山)의여섯회사대표자가상경하야 협의한결과 합동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보게되엿다 이 합동준비위원이 합동후의중역이십일명을 각여섯회사에 배정하야 선출한후 그새로뽑힌 이십일명의 중역회에서 사장과 본사를 둘지역을 결정하기로 되엿다고 한다 이와가티 이남조선전긔합동문제는 거위그골자가 이제야 가추워지게되엿스로 이로써 남조선전긔가 완전히 한회사에 통제되고 나아가서는 조선전긔통제문제에 큰진전을 보힐모양이라고 한다

拉去二百六十四名 殺害四十六名

昨年中平北對岸의 反滿軍出沒狀況!

【新義州】작년중 평북(平北)국경대의 반만군의 출현회수(回數)와 범행의 통계를들추어보면 조선내침입습격(襲擊)교전(交戰)이 일백사십오회 랍거(拉去)이백륙십사명 살해(殺害)사십륙명 방화(放火)칠십회 금품피해액칠천삼백칠십구원 경찰관(警官)전사삼명 반만군전사(反滿軍戰死)칠십칠명이다

▲朝鮮內侵入 四回
殺害 三名
傷害 一名
拉去 七名
銃器强奪 六本
金品同 二、九二七圓
警察官殺害 六名
同 傷害 一名
反滿軍戰死 四名
傷害 三名
▲船舶襲擊 四二回
殺害 一名
傷害 十一名
拉去 三八名
金品强奪 二、四二二圓
▲村落及其他襲擊 六〇回
殺害 四一名
傷害 四九名
放火 七〇回
拉去 二一九名
銃器强奪 四七本
金品强奪 二、〇三〇圓
▲警官隊接觸交戰 三九回
殺害 一名
銃器强奪 一本
警官殺害 四名
負傷 五名
反滿軍戰死 四一名
負傷 二八名
▲兩軍對峙交戰
反滿軍戰死 三一名
同 負傷 五一名

大屋商事船沈沒

乘組員三十餘名絶望

『小樽電話同盟』대만대우상사주식회사(大屋商事株式會社)소속어국환(國丸)(三二二噸) 선장길전(吉田)외는 십이일오전십시이십분경에 어학사항에렙구십실종하엿고 백마종 부어 흘넛스고 소호(小樽)를 향하야 청수항(淸水港)으로 항하는도중 적단갑(積丹岬)부근해상에 다다랏슬적에 대풍랑을맛나 치로(舵路)를 일흔때문에 표류하는 해상에서 지로부터 약백간되는 해상에서 고만 바위에 충돌되어 융중한배가 두쪽에 나면서 침몰이되엿는데 승조원 중에 아혼 명은 간신히 륙지로 헤엄처 왓스나 그중두명은 피로와한기때문에 드듸어 절명되고말엇다。 그리고 남은승조원 삼십일명은 생사가전혀 불명한데 필경배와 함께 운명을가티한것가티 보이며 이급보를접한 촌민들은 각방으로 구조작업을 하는중이나 파도가 노피배를 조종할수업는 관계로 수수방관할수밧게업는 형편이라한다

會社側에서 考慮를言明

釜山埠頭人夫動搖事件續報

【釜山支局電話】=부산부두로동자삼백여명의동요사건은이미 의사활인상을절대적조건으로 회사당국의 선처를 요망한바 십이일저녁에 회사측으로부터 로동자측에 신중고려한다는 막연한회답을 하여왓슴으로 로동자측에서는 일단회사측의 태도를 존중하는의미에서 대부분은 십삼일부터 취업을하고잇스나 그중 태산조(泰山組)인부 백여명중의 약반수는 아즉도 태도를 강경히하야 태업을하고잇다 그래서 이상회사측에서 언명한고려의성의가 이상인통으로 어떠한형태로든지 나타나지안는경우에는 사건은 다시험악화하야 전긔 삼백여명이 적극적행동을 취할것으로 그불동이부산부내 일천여부두로동자의 동요에까지 이를는지모른다한다

第三次共靑 公判도延期

來三十一日로

【京城】오는 십팔일공판정되얏든 재사차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靑同盟) 사건 한위건(韓偉健)등사십구명에 관한대공판은 판소의 사정으로 다시 연긔하야 오는이십일일 개정키로결정 되얏다는데 한때국내를 경동시킨 공전의 대사건인만큼미리 부터 공판결과가 주목되고잇다

夫婦싸움에 飮毒한사나이

십이일 오후 여덟시반경에시내 부암정(付岩町) 륙십이번지외 일호에사는 리왕직 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단이는김덕규(金德奎)라는사람이 시내죽첨정(竹添町) 삼정목 삼백사십륙번지 자긔누의집에서 양재물을먹고 자살을 도모하야 신음하고잇는것을 그집사람들이 발견하고 곳부근고려(高麗)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바닷는데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원인은 그날아츰 자긔안해와 싸홈을하고 가정불화를 극도로 비관한끄테 그와가티 자살하려든것이라고한다

無名氏가千圓 國防獻金

국방헌금은 날로부터 가는중에 십이일중의 헌금으로서는연초소매인협회로부터 사천여원을필두로 총계칠천사백십사원 소화십일년부터의루계는일로 팔십륙만삼천팔백사원에 달하고잇다지난해 금융달도 조선군사령부에는 양복한신사한사람이 차저와서 적은돈이나마 바텨달라고봉투한장을 내여두고 가는사람이잇서서 계관은 그의일홈을무럿스나 일홈은 봉투속에 적혀잇다하고 그대로감으로 봉투를열어본즉 그속에는 백원짜리 열장이잇섯다고한다 그리하야 즉시로 그사람의 뒤를조처스나끗내그의 정체를 모르고 말엇는데군사령부에서는 기특한 그의신분을 조사중이라고한다

『포푸라』短杖을唯一證據로 『玉』과『延』을最後로斷定

檢事가犯人다리고十三日에現場檢證

蘇島老婆慘殺事件一段落

루보=근래에드믄 련기적흉미를불도듬고 새해첫머리에 피비린냄새를 피우고잇든 서대문외 로파살인사건은 발생이래오랜 울마른 금십삼일에야 겨우일단락을보게되엿다 즉 기보한바의 유력한혐의자 옥건창(玉建昌)을 주범으로 연자근문(延自斤文)을 공범으로 단정한 모양이다 이가티 옥건창과 연자근문이 범인으로 단정된 근거는 긔보한바와가티 그들의 자백에 의한 것이고 울적 증거로서는 사건발생한 그이튿날 즉 칠일아츰 살해현장에서 발견한 여섯자가량되는 『포푸라』나무단장하나가잇슴이다 그단장을 가지고 옥건창이가 륙일저녁 잠들고잇는 용전로파의 안면을 빈틈업시때리여서 즉사케한것이라고 하며 그 포푸라 나무에 무든 혈액을 검증한 결과 피해자의 혈액형(血液型)과 동일한것이 판명되엿다 가튼 참변을 생기게하엿다고한다 그리고 십삼일 오후 근등(近藤)검사와 동대문서장 이하 관계자는 범인 두사람을 다리고 살해 현장에 가서 세밀한 검증을 하고잇다。 이러케 연(延)과 옥(玉)의 범행으로 지목하야 그 증거수집에 고심하는 동대문서에서는 당해청(唐海淸) 당상완(唐祥完)등 세명의 중국인은 전연 류치해둘 필요조차업서서 십이일 무사석방하엿스며 옥건창의 동모되는 서대문외 이백구십사번지 잡화상 리성재(李成宰)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심문하고잇는중이다。

釜山大倉町에大火

消防手等九名重輕傷

【釜山支局電話】십삼일 오전한시십오분경에 부내대창정(大倉町) 이정목 이십삼번지석정(石井)자동차부 엽집인가구점 궁협상점(宮脇商店)뒷채에서 돌연 불이일어나 삽시간에 공과 린접한 석정(石井)장서(長西)곡구(谷口)가상점을 연소하고소방대의 필사적 활동으로불은무시삼분경에 잡엇는데 소실된가옥은 전소가 이동이호 반소가 일동이호로 손해액은가옥가구、상품합하야 삼만오천원가량이나 이중에 보험에든것이삼만삼천원가량이라한다 그리고출화의원인은 방금경찰에서 조사중인데 이화재 소동중에 전긔궁협의집가족삼명이 부상하고 소방수중에 승전(勝田)、중촌(中村)등과외삼명은 중상을 당하얏다한다

移轉擴張記念
설빔옷감대특매
各種綢緞一割引
斗 榮 商 會
鐘路2・電光1570
(우미관골목옷옷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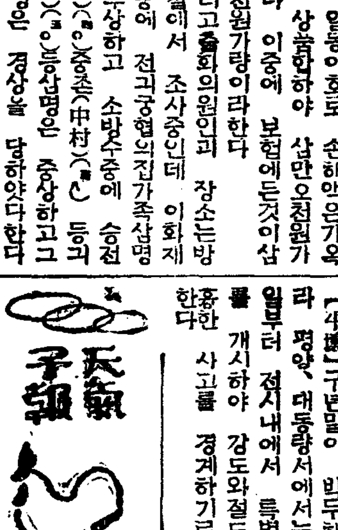
두갈래길

형무소간수 시험을 보려고 조선에 건너왓든 일본내지인청년이 경찰관교습소에 입소치 못하고 서이 체포되엿다 록아도(鹿兒島)출생 죽내수의(竹內秀義)는 얼마전에 입경하야남대문통(南大門通) 오정목미옥려관(美屋旅館)에 투숙하고 간수시험을 보고잇든중 십일오후 여섯시삼십분경에 엽방에 류하게된 신전관(神田寬)이라는청년의 트렁크속에서 현금십이원을 훔처가지고 시침을 떼고잇다가 그가티 체포되엿다

舊年末의警戒

十三日부터開始

【平壤】구년말이 박두해짐을따라 평양、대동량서에서는 십삼일부터 전시내에서 특별대경계를 개시하야 강도와절도등 흉한 사고를 경계하기로되엿다



槪況 高氣壓은 朝滿國境中에 七七八粍를 보이고잇스며 氣壓은 本邦方面이低하고 北海道本部에는 七五二粍의低氣壓이잇다 朝鮮滿洲함께 日氣는조코 바람은弱해지고 氣壓은 昨朝보다 二度內外노파저서 寒氣는 풀렷다 裏日本은雪、地方에따라서는 降雪이잇스나 表日本은 日氣가조타

豫報 今夜는晴、明日은薄曇 寒氣는풀린다

昨日最高 零下五度一
同 最低 零下十一度九
今朝最低 零下十二度六
今日正午 零下四度一

對早大氷上戰 朝鮮軍不利

32對26早大軍優勢

수씨-즌에 드러서 처음으로 열리는 氷上戰 世界올림픽出場選手를 主力部隊로한 早大氷上部招聘戰은 十二日午後零時十分부터 淸涼里町링크에서 열리엇다 이날氷質이 不良하야 好記錄은 期待키어려웟스나 氷界의 第一線을거러가는 猛將들이라 觀衆을 끄러 千五百米릴레-스로부터 競技를開始하엿다 그리하야對抗戰은 外來軍을 마지하야 朝鮮軍은 이번이 처음이라 몰지못하야 不利한狀態에잇다 (寫眞은 入場式과 出發光景)

【千五百米】(세파레-트)
▲A組 1李仁源(朝)二分四二秒二 2南洞(早)二分四七秒三 ▲B組 1崔寅(朝)二分四四秒八 2中村(早)二分四五秒八 ▲C組 1尹明洙(朝)二分四八秒三 2磯口(早)二分五五秒七
【順位】1李仁源(朝) 2金基鎭(朝) 3中村(早) 4南洞(早) 5尹明洙(朝) 6磯口(早)
【得點】朝鮮軍 十三點、早大軍 八點

【五千米】(오픈코-스)
1李聖德(早)一〇分一四秒八 2李仁源(朝)一〇分一四秒九 3南洞(早) 4金河古(朝) 5尹明洙(朝) 6杉波(早)
【得點】早大軍十一點五 朝鮮軍 九點五

【五百米】(세파레-트)
▲A組 1中村(早)四九秒八 2金永河(朝)五一秒六 ▲B組 1李聖德(早)四八秒八 2尹明洙(朝)五一秒二 ▲C組 1南洞(早)四八秒八 2李仁源(朝)五一秒二
【順位】1李聖德(早) 南洞 3中村(早) 4尹明洙 李仁源(朝) 6金永河(朝)
【得點】早大軍 一五點 朝鮮軍六

早大하키快捷

對延專戰에

全日本아이스·하키-覇者 早大對延專戰은十三日午後零時五分부터 淸凉里町하키-링크에서 中島氏審判아래 열린바 延專軍은 四對三으로 善戰끄테 惜敗하엿다

早大 4 ｛1…1／1…2／2…0｝ 3 延專

【延專】 F [illegible] D 植福德 斗完 尹崔 G 韓[illegible]
【早大】 F 藪田 田島 田本 鬼安 須 小吉七壽 D 川田 市平 G 澤田 中小野

延專柔劍冒寒練習

延專柔劍道部에서는 十三日부터二週日間 同校道場에서 冒寒練習을 行할터이라고한다

八月說이有力

東京大會會期

【東京電話同盟】第十二回올림픽委員會는 十二日午後五時부터 體協事務所에서열고 東京올림픽大會期에關하야 中央氣象臺의藤原所長을 招致한後 過去四十年에亘하야 七、八、九三個月의氣候에對한 統計의說明을 求한바

一、七月上旬은 霖雨期이며 이雨期를지내서도 날새는덥울다
一、七月中旬으로 八月中旬까지에는 더우나 天氣는第一조타
一、八月末로부터는 颱風期에들게되여 天候는不順하다
一、九月中旬부터는 淸凉하야지나 雨量이만허진다

等의意見을 어든結果天候關係로보아 八月一日부터開始의 第一案과 淸凉期로보아九月十日의第二案의 決定을보게되바 그러나第二案은 風雨의근심이잇고 第一案이면 只今까지의大會開始와거이變함이업서서 各國서도 選手派遣에는 別다른文句가업슬것이다 그리고防暑에關하야서는 競技時間을 變更하야 이것을緩和할터이며 競技場에는 夜間照明設備를하고 『멘스탠드』는 太陽의直射와 소내기를 防備할수잇도록 設計한다면 結局 第一案이거이確定的이될것이라고한다

南長老會總務 廿五日頃에來光

敎會學校問題處決次

【光州】문제중에잇는 긔독교남장로회관계학교인광주수피아녀학교(光州須彼亞女校)와 숭일학교(崇一學校)또는 전주(全州)신흥학교(新興學校)등은신사참배문제로 폐교의기로에서잇슴으로 본지에로보한바와가티 문제가문제인만큼 조선에와잇는 선교사협의원회로도 어찌할수업는 형편이여서 미국본부로부터 전라남북도회 이달이십구일경에 동회총무 『풀톤』씨가 주전광주에내착하야 모든사정을청취한후 존폐의양단을결정하리라는바 재광교직원들은 물론 일반인사는 그의내방에큰 긔대를갓고잇다한다

가정과위생

냉증이잇스면

아해를배지못합니다

東京木村病院長 醫學博士 木村仁

부인병에걸니면 반듯이 대하증이 생기게되니 大學病院에서 만흔환자를구원하고잇는『와세돈球』로곳치면 자택에서도 病院과똑갓흔치료가되여 간단히 근치됩니다

부인병(자궁병)은 그원인이반듯이 자궁에 병균이들어가서 그곳을여러가지로 해롭게만드는때문이니 즉상처난곳을 진물느게하고 붓게하며 열이나게만들어서 여러분이 깨닷게되는 부인병의 증세를 만들어주며 또한대하증이 잇스면 아해를 못낫케됩니다。 그러므로 부인병을곳치라면 그병균이 활동하고잇는자궁속을 치료하여야 속히낫는것은 정한이치가 아니겟습니가 그런데도 흔히구하고 먹는약으로 부인병을 곳치라고하는분이게시나 엇지그곳에 약기운이 퍼질니가잇스며 더구나 자궁속에기보(卵巢)점막(粘膜)에서 움지기고잇는 병균이 배속을거처나가 버리는약으로죽겟습니가 그런까닭에아모리 내복약을장복하여도 낫지안케됩니다 엇더케하면 속히나을수잇느냐하면 자궁에직접치료하는방법을취하여야되나 그것은 의사의손으로 수술혹은 약으로곳치거나 민간에서는 의사가쓰는약으로직접 곳치거나 국그약으로는 최근발명되여 各地帝國大學病院을위시로전문병원에서 매일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와세돈球』로 곳치시면자택에서도 病院과똑가튼 치료가되여 곳곳치되는약이니 이것저것하고 주저마시고 속히 병근에서 버서나실분은 꼭써서 근치의깃붐을 어드시압소서

가정에서 손쉽게 근치되는와세돈球

실은實例

소박밧고 서양까지본 서름는 눈사러지듯 햇습니다

論山 李淑德

……結婚한지 三年이되여도수태못해서 시부모뵈올낫짝도업고 남편은눈도록 슬하에혈육이업서 화만내고 밤출입이 잣드니 及其也손보겟다고 작첩을해노코 부터서는 낫이만잡시단여가고밤에는 독수공방에 자복업는슬픔의한탄으로 애태우던생각을하면 공연히 洋藥만 장복하면서 칠성단모아노코 새벽이면 일즉이 이러나서 정성드리든것이 이제와서는 참으로어리석엇든 지난날이 우습기도하고 분하기짝이 업습니다 두번보내주신 貴藥「와세돈球」로 이런 서름은 가시고 경도가 나지안코지 이개월이나되엿사오며 漢醫의진맥도 낙자업는태맥이라고 그럼니다 집안에서는 경사라고 모다 깃뻐하시며 남편도 근일에와서는 밤출입도 도모지안코서 조곰도과한문통은업고 약단이을뿐안니라 치가햇든소실도 몰녀보내고 이제는어서 산월이되기만 고대이오니 참말노꿈속가튼 생각만납니다 姙娠中의 注意를 자세하게일너주시고 더계속하겟사오니三十六日分을곳부처주시압

겨울이면甚하든 냉배와帶下症이 『와세돈』으로낫다

春川 朴寶姬

(前略)전번에보내주신 貴藥「와세돈球」는 감사하게바덧사오며 곳使用하기始作하엿든바果然效果가조습니다 첫재밤잘때에 넛코자면되는것이어서 매우편리하며 쓰기시작한지 一週日도못되여서부터 대하물이끈치고아래배가아프든대신에 열이나는것가치후 눈해젓습니다 압흐로더좀사용하여서완치식히겟사오며이제는자복업는서름을 이저버리게되는모양이오니 그은혜는감사하압기측양업사오며 근처에사시는분두분이내병난것보고서부탁함으로그분네들것까지三十日分하고합께付送하시면 고맙겟습니다

冷症이가신듯낫고 子福까지으든기쁨

定州 白菊順女

(除煩)보내신藥으로 治療하여본結果 事實로 이제는 깁븐消息을 先生님께전해드리겟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지긋지긋하든대하물이일절업서지고 아래배아푸든것이낫슬뿐안니라 지금것차듸찬 수족이더워젓습니다 그리고또月經비이고아젓슴뿐만안니라 가슴답답하든것과 기타모든증세가업서젓습니다 그나그뿐입니까! 이제것기대리고 苦待하여오든 子息의서름을 오날되여서야 버서나게되엿사오며 시부모뵈옵낫이 지금에서야 떳떳하게되엿사오며 남편에 외도까지끈처저서 매일밤이면 꼭집안에게시게되고 애기수태못한다든탓으로 시앗보앗든 서름으로 칠칠지한이든것이인제는 완전하게 남편의사랑을 독점하게되여서 이러한기쁨이 또어대잇겟습니가 하도조아서 꿈이나안인가하고 의심이 날만큼 희한한일이옵시다 선생의은혜는 제생전에 무엇으로든지 갑겟슴니다만은 爲先同里사는 일가의 부인의부탁으로 誹文하는것이오니 곳三十六日分만 부처주시압

와세돈球로만흔환자를구원하고잇는有名한病院의一部

東京帝國大學附屬醫院
東北帝國大學附屬醫院
京都帝國大學附屬醫院
九州帝國大學附屬醫院
日本醫科大學附屬醫院
大阪醫科大學附屬醫院
長崎醫科大學附屬醫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東京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仙臺遞信病院
東京市電氣局病院
聖路加病院
橫濱十全病院
橫須賀市立病院
市立神戶市民病院
弘前市立病院
大分縣立病院
救世軍病院
岩手醫專附屬病院
聖바나바病院

근치되는와세돈球

의사전문약으로 권위잇는 대병원에서 수만흔환자를구원하고잇는 부인병근치약을 처음민간에 제공한지 불과얼마되지안흔 오늘날에 조타는약은 다써도낫지안어서 죽기만바라든분이 회생되엿다는분、집안사람들래 병놀곳첫다는분 수술을안코도곳처나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든분이 알게되어 평화한가정을일우고잇는분 부인병이 다낫코 아해를배엿다는분들의감사와칭찬의 환성이 나날히 커가고잇습니다。이것은 모도가 적당한 치료약을 선택하신까닭이니 아즉것 부인병으로 고통을 밧고게신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조선국문으로 자서히 병세를쓰신후 우표三十錢을 동봉하야 신청하시면 주문하시면 본보애독자에 한하야 남어지송료를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약가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百四十四日分(病院用)十三圓

東城市之區通新町十二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城三五〇一九番

조선국문으로된 부인병자력치료서 무대진정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朝鮮日報 安岳支局

◇一月十三日부터每日晝夜二回上映 午後一時半七時始映
大衆料金 樓上二十錢 樓下十錢均一
◇爆彈的痛快劇名畫大會◇
◇伊太利지네스·밤다루가總製作 日本版 空中戰爭大活劇 征空大艦隊
◇르네·클레르氏作品 最後의百萬長者
마키노超特作 時代劇 旅と春風 監督…田丸重雄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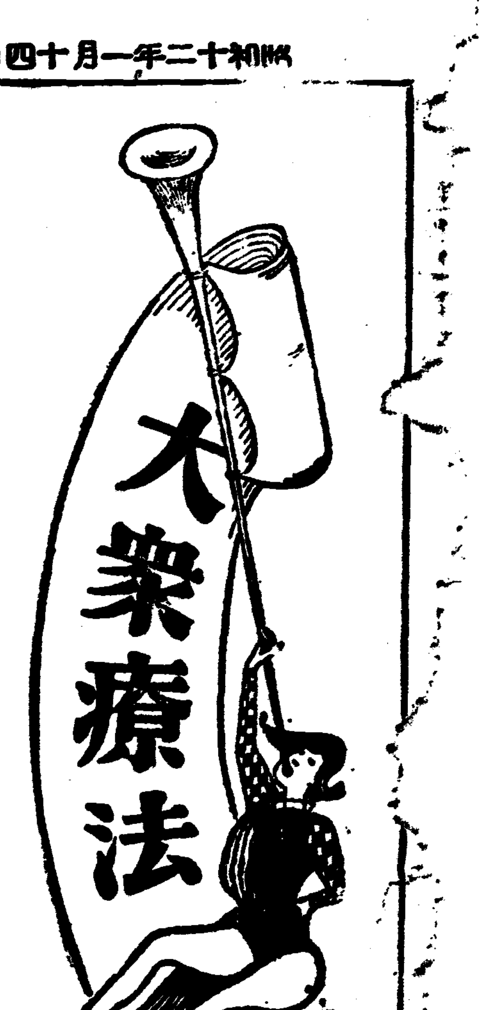
新富座 電本2 八五七
十四日より六日間 晝夜三回
パラマウント超特作 ドロシイ・ラムーア主演 ジャングルの女王
P.C.L.吉本合同作 柳家金語樓主演 德川夢聲助演 武士道朗らかなりし頃
▲本日・大每 國際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 日本語版ニュース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ワカゲキ
一月十二日부터特別大封切!
유社超特作全發聲大連續篇 호래대리크스·스테파니氏監督作品! 超人對火星人 十一、十二、十三最終解決篇 바스타그라부氏主演
第十一篇…猛虎의爪牙 第十二篇…破壞內의陷穽 第十三篇…地球에의飛行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에리옷도누겐드氏監督 學生怪死事件
마키노超特作全發聲時代劇 廣瀨五郞監督作品 義士外傳 奴の小萬 原駒子主演 光岡龍三郞 雲井龍之助 助演

優美館 電光二九五
一月十三日부터三日間第一回公演
京城映畫劇團大公演 劇團公演에限하야는夜間에만限함
映畫와劇! 映畫▲紅唇百萬弗 劇▲그안해의改心
幕間을本位로삼는映畫劇團의充實的內容!

光武劇場
韓君의一大壯擧! 特別餘興=朝鮮力士文鍾權君特別出演●氣合術●力技소름이끼침만
幕間=무용=자스댄스 交換上演!

中央館 永樂町
十四日ヨリ四日間限リ 十七日マデ 階下席十錢均一
佐久間妙子南部章三主演 居候脫線記
RKO超特作豪華版 プレストン・フォスター主演 ポンペイ最後の日
松山宗三郞三城輝子主演 勇肌仇討道中
每日晝夜三回興行



結核患者와 榮養療法에 對하야

京城授恩町 全一堂醫院長 全秉勳

엇던結核患者를勿論하고 結核患者는大槪로 普通人以上의體溫을必要로하는故로 適當한榮養價値의 食物을 可及的으로 多量攝取케하는것이 조흔療法의하나이다 그러나그症狀과 消化力을 無視하고 過食이나 或은偏食을 濫行하야오히려 惡影響을 주기쉬운것이니特히 注意할것이며 飮食物撰擇에잇서서도 榮養價가 豐富하고 消化되기쉬운流動食을 攝取할것이며 新鮮한野菜 果物等도 適當히取하게함이 조흐나 特히 腸結核이나 腹膜結核에잇서서는 本來가 下痢症狀을 呈하는 關係上 刺戟性食物은 絶對로 避할것이며 鷄卵이나 牛乳도 下痢를誘致키쉬운故로 먼저는 胃腸의機能을根本的으로强하게하야 消化吸收力을助長식혀야할것이다

그다음 肺結核에잇서서 刺戟性食物을除한外에는 消化力이許諾하는限 食物의量을制限할必要는업다하나 過食이나偏食은絶對로禁해야 할것이다

以上에도述한바와가티 一般結核患者는普通人以上의營養을必要로하는데反하야 消化機能은大體로衰弱해지는것임으로 適當한滋養食料를 攝取함과同時에 胃腸을强化식히고 營養補給의 完璧을 期할만한 藥劑를 撰擇하야서, 綜合으로 治療하는것이 가장 理想的 療法인것이며 이藥劑撰擇에 對하야 나는『蔘茸精』을推奬한다

勿論人蔘과 鹿茸이라면 古來로 神秘的補强의作用이잇다하야 實用함은世外라 最近의 新醫學上으로도 此를 證明하며 世界에 널니 자랑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런데나는 이蔘茸의眞價를體驗하고자 하여 數種의蔘茸劑를服用하여보아도 別로히 期待以上으로 特別한效能을엇지못하엿섯스나 過然히 朝鮮商會에서 製劑한『蔘茸精』을 服用한 結果 놀랄만한 效果를體得할수가잇섯든것이다

爲先 첫재로 胃腸을비롯하야 全身의 生活機能을强化케함으로 營養素의消化吸收力을增進식히며 機能이充分하여저서起床後에淸新한愉快味와 倦怠와疲勞를感하지 안는等의 諸現狀이 本劑의奏效를 證明하는것이다 그리하야나는 結核性患者는勿論이고 慢性胃腸病者、神經衰弱者、病後期、榮養不良兒、産前産後等의患者에게도 恒常此를愛用케하여 莫大한效驗을엇고잇는것이다

이로써보면本劑는 特히人蔘鹿茸의精分에다가 有效性藥劑等의 配合한故로 各有效成分은 互相助長하며 合同的으로作用하는데에서 人蔘鹿茸도 그神秘的眞價를 發揮하게됨이 아닌가 생각하는同時에 이『蔘茸精』을一般에게 널니 推奬하는바이다

◎月經不順도 자최업시사라저

永興郡新豐里 金明燁

나는今年三十七歲된女子이온데三十三歲에일즉이斷産을하고經度가不調하든것이蔘茸精을먹고經度가풀라저서다시受胎할希望을가지게되엿습니다

一般病弱者 神經衰弱者의 家庭治療

京城武橋町 內科小兒科專門 平和醫院長 禹錫龜

精神을過勞하는學者、學生、技術家、政治家、商業家等이나 또는 手淫、房事過度하는者 或은 急性이나 慢性傳染病後에 身體虛弱한者는 神經衰弱症에 걸니기쉬운것이니 神經機能이 異常히 興奮도하며 疲勞하기쉽게되는것이 本病에 特性이라 患者는 精神作用에依하야 頭痛、頭重、眩暈不眠症等이 생기며 凡事에記憶力이鈍하여 지고感情의障碍로因하야 變心키쉬우며 憤怒키잘하고恒常 마음이鬱鬱하야 悲哀에빠지수기우며 讀書、或은 行步할時에는 容易히 疲勞를感하며 神經痛과 偏頭痛이併發되여 心悸亢進과 心動不整이되며또한 生殖器에도 障碍가 되여 夢精、早漏、精神的陰萎가되며 消化不良症、便秘口渴、多尿多汗等諸症狀이 發生되나니 이러한 病症으로 苦悶하는이는 먼저 그의原因을 除去하는 同時에 身神을 安靜히하고 起寢과食事를 規則的으로行하여야 될것이다

飮食物에잇서서는 첫재로消化하기容易하고 刺戟性이 업는滋養食物을 適當히 攝取할것이나 本病은 大槪로 全身的衰弱과消化機能障碍로 因하야 胃腸이弱하여지기쉬운것이니 아모리조흔營養食物이라 할지라도 消化吸收할能力이업다하면 무엇하리요 그런故로 胃腸의 機能을 根本的으로 强化시키여 營養素의吸收作用을 敏活하게하며 恒常榮養素의不足한 部分을 補充시키여서全身的活動能率을增進시키는同時에 高速度로補血强壯强精作用을하는 『蔘茸精』을 服用하는것이第一緊要한것이다

即自然과親하고 規則的으로攝生하며 滋養食物을取하고『蔘茸精』을 服用하야서 비로소完全을期할수잇고 攝法인것이며 實로更生의歡喜를맛볼수잇는것이다

本劑는世界的으로 가장오랜歷史를所有하엿스며 漢方에萬補作用을한다는 人蔘과鹿茸의精分에다가 優秀한新藥補劑를合理的으로配合한製劑로서 엇던蔘茸劑보다도가장卓越한効能을 나는일즉이 여러患者의게試驗하야 認定한故로이『蔘茸精』을 本院의專用藥으로指定하엿슬뿐外라 一般에게널리推奬하는바이다

年滿八十에 更少年되어

醫生 吳玹錫

本人이 年滿八十에 神經이衰弱하고 氣力이 疲困하와『蔘茸精』大一瓶을 服用한後로 血分强壯하고 氣力湧出하야 有更少年之實效하오니 藥品中『蔘茸精』이 第一最的有効하므로 此를證明하는同時에 널리 勸告하는바외다。

가든길의잇는 運動家諸君께

徐廷權

此劑蔘茸精을推奬한다 特히 疲勞한때에 一杯야 말로 元氣를 百倍나 도와준다 그런故로 나는 恒常이 蔘茸精을 愛飮하는同時에 가든길에잇는 運動家諸君에게勸하야 마지안는바이며

나도『蔘茸精』을 愛用한다 廣告와 틀님업는것은 내가 服用한 事實로서 自信잇는 補劑임 그實効잇는것을 내가여러분에게 證明하며 推奬하는 바이다

病後恢復期에 好調는 놀낼만한速度를보여

醫學博士 松岡寅夫

나는일즉이『蔘茸精』의好評을듯고此를實驗키爲하야 諸種患者에게試用한바體力恢復의迅速함을認定하엿다즉 小兒의貧血、榮養不良、發育不全、腺病質의虛弱者等이나老人性衰弱、精力減退나病後恢復期結核患者의衰弱、食慾缺乏等에應用하여卓越한効驗을보앗다 特히病後恢復期에好調는놀낼수박게업고누구나服用키便하며人蔘獨特의芳香과美味에모다贊成하엿다

斷然人氣大集中 躍進無敵！

◎廣告를잘하는藥이조흔藥이안이라 實効를證明한藥이조흔藥임니다

丸製補藥의 缺點을고치여

一、丸劑는大槪로胃腸에서消化하기가困難함으로[illegible]効力가이發揮치못하는것
二、丸劑는大槪로變化하기가쉬운故로[illegible]는것
三、以上의모든缺點을고치기爲하야液劑로한것이本藥의特色임니다

十一大醫學博士實効證明

醫學博士 松岡寅夫先生
醫學博士 小村榮三先生
醫學博士 今村豊八先生
醫學博士 李甲洙先生
醫學博士 金夏植先生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醫學士 仲尾次景榮先生
醫學士 金永猷先生
醫學士 金光鉉先生
全一堂醫院長 全秉勳先生
平和醫院長 禹錫龜先生

人氣集中하는理由

보시요！ 効力第一을말하는 이證據를！

●本商會에서 蔘茸精을 發賣한지도 임이五個星霜 昨今에衰함업시 大衆의支持와 賞讚을 밧어왓사오며

●그간에 제아모리 別々廣告術策을써서 제가第一이라고 떠드는藥들이 續出하엿스나 이蔘茸精만은 언제나 꾸준하게 獨步的으로 宣傳本位를 떠나서 効力本位로만 勤々努力하여오게되엿스니

●一般服藥者들은 이藥에서 저藥으로 갈피를 찻지못하고 속아만보다가 結局은 比較하여 써본結果로 果然 蔘茸精의効力이 第一이라는 事實을 發見하게되자 同時에 눈물겨운 感謝狀이 踏至하게되엿스며 補藥界의 人氣는 斷然 蔘茸精으로 集中되고 만것임니다

●本商會에서는 벌서부터 이것을 豫測한 事實이오나 一般愛用者諸賢께서 이蔘茸精에 對하야 正當한 理解와 證明下에 推奬하여주신것을 特히 感謝하여 마지안습니다

高速度補血、強壯、強精新藥 老年還童 蔘茸精

이러한분은 한시라도
밥비약을쓰시요?

○氣血이不足하야얼골이蒼白한이
○精力이衰退하야手足이厥冷하고下焦가濕한이
○肺尖カタル肺結核으로因하야盜汗、發熱喘息等으로苦悶하는이
○心臟이弱하야恒常숨이갓부고疲勞、倦怠를感하는이
○神經이衰弱하야頭痛、眩暈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慢性消化不良症으로飮食이잘내리지안코 가슴이 쓰리고 알코기도하며꿀꺽꿀꺽소리가나는이
○過飮過色으로因하야全身이衰弱하여진이
○心身過勞로因하야早老한이
○月經不調로걱정하는이
○重病後恢復期에잇는이
○榮養不足한小兒
○産前産後에虛弱한婦人
○히스데리에걸닌이
○其他一般病弱者

◎萬金을주어도살수업는당신의健康을蔘茸精단한병으로맛볼수잇습니다

우리조선사람에게맛는 補藥은 무어니무어니해도 人蔘과 鹿茸의 純全한 精氣로 만든 蔘茸精밧게업습니다

000764

▲醫學博士及斯界權威者의 特別한推奬文
▲京鄕各有名病院專用藥指定
▲踏至하는先服者의感謝狀

이것만으로도蔘茸精이補藥中第一이라는것을넉々히證明할수잇스나以下의五大事實을具備하지못하고는第一이못되는것입니다

五大事實

一、醫學的事實 — 蔘茸精은人蔘과鹿茸의純全한精氣를抽出하야그우에다가最新洋藥强壯劑를配合하엿슴으로人蔘은主로補陽、益血하는同時에恒常人體榮養素中不足한部分을補給하며、鹿茸은角尾反應에依하야補陰、安胎增血作用하는데다가、人體의活動素를주는最新强壯劑의비타민A、B・カルシウム・アミノサン・ホルモン等의性分이서로有効機能을助長하야實로治病、益壯의作用을遺憾업시發揮함니다

二、販賣事實 — 以上에도말한바와가티宣傳本位를떠나서効能本位로만研究努力하는故로服藥者로不知中宣傳되고傳播되여每日가티殺到하는注文과、山積한出荷가이事實을證明하여주는것입니다

三、感謝狀의事實 — 蔘茸精을服用하고서効力보든事實談과感謝狀、推奬文이踏至하는데그內容을보면大槪가여러가지로廣告잘하는다른藥에속아서엇던이는數百圓式金錢을虛費하고도病은곳치지못하다가이蔘茸精다한두병에곳치엿다는놀나운事實談이만슴니다그런고로모르고속는이는할수업거니와이런줄아는이는이蔘茸精만큼의事實을具備치못한藥은絶對로安心하고쓸수가업다는것입니다

四、醫學博士의實驗例 — 엇던藥치고効力이아조업는藥은업슬것이요、感謝狀도잇슬수가잇습니다、그런故로以上의三種事實은어느藥이나普通으로가질수잇스되적어도醫學博士의實驗例와特別한推奬文을가지지못한藥은完全唯一하다할수업는것이니이蔘茸精이야말로十一大醫學博士諸氏께서各其手驗을다투어가며解剖하고實驗하야서證明한推奬文을가지고잇습니다

五、各有名病院에서指定한事實 — 이蔘茸精은實質的으로効力本位의藥으로서到底히追從할수업는內容을具備하여잇슴으로京城에全一堂醫院과平和醫院等을비롯하야京鄕各有名病院에서專用藥으로指定하게까지되엿든藥은이蔘茸精뿐임니다

錠劑蔘茸精

事務多忙하시는이나 旅行하시는이들이 携帶服用하기에 便利하기爲하야 蔘茸精을 그대로結晶식혀 粉末로서 製劑한蔘茸精錠이잇사오니便利하신대로 利用하여주십시요

藥價

蔘茸精	
二五〇瓦入	三圓
五〇〇瓦入	五圓

錠劑蔘茸精	
一五〇錠入	一圓
三五〇錠入	二圓
五一〇錠入	三圓
九〇〇錠入	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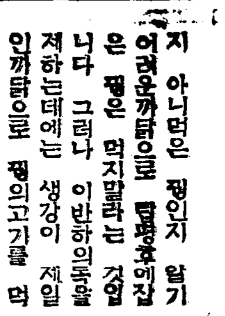
京城府授恩町二十二番地
朝鮮商會新藥部
電話光化門(3)一七五八番・振替京城一〇三八六番

—그리운눈소식—

납평이 지난뒤는 꿩고기에 반하독

그러나 제독하는방법이 잇스니 생강을 고명으로 쓰라

요새가티 치운겨울에 더운방안에서 먹는음식으로는 영양가치로나 특별한맛으로나 꿩의고기만한것이 업을줄로생각합니다 꿩이라는것은 다아시는바와가티 닭과흡사한놈으로 산계(山鷄)라하지안합니까 그산출로말하면동양에는 어대나ㅣ잇는모양이나 조선서 더욱만이 나는 모양입니다。꿩은 다른조류와 그서식방법이라든지 그행동이 좀 다른것이잇습니다。다른꿩중에서도 서로사는 구역이 달러 다른구역의 놈이 자긔구역을 침범하면 쟁투를하야 축출하는 성질이잇고 자긔구역내에서도 다른 조류와가티 수백수천마리가 한대 군거(群居)하는것이 아니라 암평한마리에 수평두세마리비례로 열마리이내가 군데군데 모여잇다고합니다。평의 맥이로보면 곤충 조 콩을 먹고 사는 모양이다。콩을 질기는 성질이 잇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더욱 제일 조와하는것은 반하(藥材—半夏)입니다。보통 말하기를 납평이전에 꿩은 먹어도 납평이후에 잡은 꿩은 먹지못한다 하는 말이 잇는데 이것은 반하때문입니다。사람이 먹으면 극재인까닭으로 해가된다는 뜻입니다。그럼한까닭으로 반하를 먹은 꿩을 사람이 먹으면 인후(咽喉)가 생기어 목이 못는답니다。그러나 꿩은 이 반하를 먹으면 살이 찌고 알을 잘 낫는것인고로 이러한 신화도 잇습니다。옛날 어느때 하나님이 꿩의게 땅에잇는 반하를 따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엿더니 꿩은세상에내려와 처음으로 반하를따서먹어보고 맛이너무나 조와다ㅣ따먹고 가지고올나가지못하고 산속에서 살게되엇는대 장마때 뢰성벽력으로천동을하면 지금까지도 보통때에하지안튼(겁겁거겁거)명(업는데 업는데 반하가업다는뜻)하며 공포의 비명을지르며다라난다고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겨울에는 헤용눈이 만히나리어 곤충이나 곡식들을 어더먹을길이 업게되여 인간근처로내려와 도라다니며 먹을것을구하다가사람에게만히 잡피여 사람들이 먹게되지만은 납평이지내면 반하라를이 다른초목보다 발육후에 쌓옵땅우으로 내여놋는까닭으로 평이겨우내 주려든풀을보자더욱 질기는 음식이라 실컷캐여먹는것입니다 그러면우리로서는 반하를 먹은평인지 아니먹은 평인지 알기 어려운까닭으로 납평후에잡은 평은 먹지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반하의독을 제하는데에는 생강이 제일인까닭으로 평의고기를 먹을때에는 우리가 고명으로 생강을 섞거 먹는것이 제일안전할뿐더러평의고기에는 생강이들지안코는맛이나지안는것입니다 또는평의고기는 그냥구어먹는다든지 살머먹는것보다 뼈따귀까지칼로이기여 만두소를 놋는것이보통마니먹는방법인대 다른조류보다평은 조혈산채를만이 먹는까닭인지 록혈(鹿血)모양으로 빼ㅣ속에드러잇는피(血)가 맛도잇고사람의게좃습니다。(朝鮮饌研究所 洪善杓氏 談)



헤르늬아

問 저는금년십륙세된 소년이온대 출생시부터 하복부로부터 고환에이르기까지 거픔카튼거시 나와다 들어갓다합니다 신체에 별이상이 업서그대로 두엇더니 점차로 커지며 근일에는 그거에도 불편막심하옵고 잘때에는 반다시 하복부로 드러감니다이 거스로 고민이 심하오니 서울어느병원에 입원치료하면 완지될까요 시일은 얼마나 걸리오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야될는지 속히가러처주시기 바랍니다 (咸山□□生)

答 헤르니아(산증)인것갓슴니다 수술을하면 완치될수잇슴니다 또는 수술이싫거든 헤르니아때(산증띠)를 하야보십시오 가하니다。수술을하면 완치될거시며서 음이 아니라도 외과전문의사어면할수잇습니다 비용은 수술하는의사와 주선상의하십시요 입원치료는 약이주일간이면 족할것갓습니다。

겨드랑에털이업소

(開城府 □□來)

問 생은당년이십세미혼남자인대 다른곳에는이상이업스나 겨드랑에 털이나지안슴니다 흉살병일까요 병이면치료방법을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開城A S生)

答 날때날곳에털이나지안하면 병이라고도 생각할수잇슬것이오 아즉 발육시기인고로 걱정마십시요 아마다른사람보다 발육이 조금는진것갓습니다。만일 겨드랑에털이안난다하더라도 다른곳에이상이업스니 병으로생각하야 걱정마십시요 안이나더라도 상관업슴니다。(漢城病院長 朴□來)

귀동냥

독살실험한처녀

렉사스노의「엘바소」에서 새로운 독약을 만드럿는데 독약의효과 실험을하야 할곳이업서서 곤란하고잇섯습니다 그러던차에 어곳에 거주하고잇는 처녀두사람이 그독약의효과 실험을 시켜달라고 신입하야왓습니다 그러타하야 그처녀들이 무슨세상을 비관하얏다든지 실연을 당하야 죽기가 소원이안이라 다만유명해지것다는 욕망으로 신입한것이라는데 양키!꼴의 바장한근러를 차저볼수잇습니다 그결과 두처녀가 꼭가티 한잔식독약을 마시여서 곳죽으라할때에 용감자료를 가하야생명에는 별관계가업시 구해냇습니다 양키ㅣ꼴의 말량이짓이 어지간하지안습니까

영양과맛으로 육류의 왕자ㅣ쇠고기

게다가내장은먹으면보약

금번은 소해입니다 이왕 먹는이야기를 할테면 쇠고기이야기를 하는것이 순서이겟지요。사실 무슨고기 무슨고기해도 쇠고기만치 맛조흔고기도 드물것입니다。쇠고기중에도 어떤것은「걸동암소가리」라고 탐이잇지안습니까 조선쇠고기는 천하에 맛조키로 제일입니다。쇠고기를 먹게되것은 오랜옛날부터입니다。그뒤에 조선에불교가 성하던때에는 쇠고기먹기가 조금덜해젓스나 근대에 이르러 또다시성하게되엿습니다。쇠고기에는 푸신 한정육도잇고 질깃한 힘살도잇고 또딱딱한가리도잇스며 간、천엽、창자할것업시 못먹는게업습니다。쇠고기의 성분을 보면 평균이십퍼센트의 단백질(蛋白質)、그가운데는 동물의 생장발육에 따라서「드리프토펜」「리진」「알기닝」「히스티진」등의「아미노산(酸)」을 가지고 잇습니다。더욱 쇠고기는 살덩이의 조직이 거치른관게로 그속에 혈액이 섞겨잇서서 철분이 만습니다。철분이만흐므로 빈혈증 냉이잇는사람에게는 조혼약이됩니다。스끼야끼가 보온용하고 사람에게 조타는것도 이러한 철분이 만흔까닭입니다 쇠고기도 전에 말한바와가티 부분에따라서 그맛과 영양가치가 달읍니다。

제일조흔고기는 등심이고 그다음에는 배살 다리 꼬리의순서로 제일나쁜데가 두부(머리)고기입니다。고기가 조흐면 조흘사록 남비나 석쇠에 올려노흐면 다만감에「빠ㅣ프스텍」「로ㅣ스트 푸라이」보요리로「스끼야끼」등은 모두 등심의 고기로 만듭니다。등심이나스면 살이단단해서 국가튼것을 만드는데처당합니다。그러나 영양가치로보아서는 그다지큰 는업고 맛이 조곰다름니다。

눈나리는 겨울밤에 이글이글한 숫불을 피어노코 소고기를 가진양념으로 비저서 구어먹는 맛도 조선료리중에서 차저볼수잇는 구수ㅣ한 정취일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으로 간、염통、콩팟、지래등은 모두 비타민에이와 철분이만코 최근에는「호르몬」제로서 여기더조흔고기가 업다고들합니다。그중에도간은중병치르고난 사람에게 대단히조흡니다。

그밧게 조선서 흔히먹는 천엽은 생것으로 회를 해먹는것만은 조치못합니다 소는 주장풀을 먹는동물임으로 온갓기생충이 이속에드러잇스니 잘못하면 기생충이 옴겨옵니다

수도물보담도 맛조흔우물물

눈섞이는해롭다

날이 더웁건 추웁건 물은 언제나 물 그대로입니다。겨울물이 여름물보다특별히 다른것은 아모 것도 업습니다。그러나 기후관계로인하야 여러가지의 상위가 업지 안흐니 위선 여름물은 기온이 높기때문으로 세균이 잘 번식하지만은 겨울물은 그런치를 못 합니다。그러키때문에 겨울물은 여름물처럼 쉬 변하지를안히서 오래 보존하고 먹을수잇스니 그역시 보존되는 처소와 방법에 딸아서 물러다고는 하지만은 와일수일은 별러가 업습니다 겨울물로 맨든 떡에는 곰이 잘 피지를 안는다는등 겨울물에 담거노흔 두부는 잘 썩지를 안는다는등 하는것은 결국 그런한 관계에 지나자 안습니다。겨울물이 여름물보담 위생상으로 조흔것은 물론이어니와 딸아서 일반뇌장물가튼데도 조흔 결과를 미치게 하는것입니다。

×

겨울물이 여름물보담 조흔때는 또 한가지의 리유가 잇습니다。여름물은 쉬 변하니까 조금씩 길어다가 곳 쓰지만은 겨울물은 변할 념려가 업스니까 한꺼번에 만히 길어다가 쓰는터로 물독에 떠잇든 보풀액이라든지 문지라든지 모두 갈아안고 맑은 물만 떠먹게 됩니다。본래 겨울물은 곳곳 길어다가 먹는것보담 길어두엇다가 먹는것이 조흡니다。수도물보담도 우물물은 더 한층 그럴필요가 잇는 것입니다。그러나 그것도 보존방법에 딸아서 영향이 만흘것은 더 말할것이 업습니다。물스독을 더럽게 하거나 물스독의 뚜껑을 잘 덥지 안커나 하야서는 도리어 길어다가 두는것이 곳곳 길어 오는이보담도 못하게 됩니다。

×

우물도 우물나름으로 먹어서 조흔 것도 잇고 나쁜것도 잇지오마는 조흔 우물은 오히려 수도보담도 맛이 조습니다。그것은 왜 그런고한즉 우물물에는 탄산이 얼마쯤 들어 잇는까닭입니다。또 눈은 아조정한것이라고 해서 그냥먹는 것은 물론이요 눈섞긴물을 일부러 먹는이도 잇지오만은 다 그것은 재미 업습니다。왜 그러고 하니 물은순수할수록 다른 물건을 녹이는 성질이 잇서서 순수한 물에는 위벽이 깍기게 되는 까닭입니다。맛도 순수한만큼 별다른 맛이 앗슬러업습니다。도리어 딴 성분이 섞기인 우물물만도 못합니다

사진은 우물깃는 안악네들

新春文藝一等當選短篇小說

城隍堂【1】

鄭飛石 作　鄭玄雄 畫

「제길 얼른구순두(상기)안와!」

순이는 저녁밥짓는동안 다때고나서、부지깽이로 다친부엌문을 활짝 열어제치며 눈아래언덕을 바라보앗다 그러나 아래로 아래로 뻐든길에는 사람은커녕、개새끼하나 얼신하는것도업섯다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잇든순이는 다시 아까와가티 중얼거리고나서 부엌바닥을 대강대강 쓸어서、검부제기를 아궁이에 털어넛는다 그러고나서 이번에는 비스자루를 든채、토방으로해서、뜰안에나서드니 천마령(天摩嶺)우에 걸린 해를처다본다 산골의해는、저물기가쉬웟다 아츰해가 압산우에 떠나부다하면、벌서、뒷산에서는 해가 저물기시작하는것이다 그러기로 선새벽에 집을떠날때에 그만치나、신신당부를햇스니、여느장날보다는 좀 일죽도라와야할것이고 그러니 이런때에는 의례히 서야할텐데 아모튼 순이는가다리기가 몹시도 안타까웟다 허긴 여느때마련하면 아직도 도라올무렵이 멀긴햇지만 순이는 공연히 마음이 초조햇다 붉은고사댕기 한감과 흰고무신한켤레를 가저볼생각을하면 금방도 억개춤이 덩실덩실 나왓고 이제 보름만잇스면 붉은댕기에 흰고무신을신고 오리박게잇는 큰마을에 건네뛰려갈것을 생각하면 금시에엉덩이춤이나왓다 어느듯 밥이 바지적바지적잣는다 순이는 솟 뚜껑을열어보고나서는 또 박그로나와 언덕아래를 처다보앗다 아직도아모것도 보이지안헛다 순이는이맛살을 찌프렷다 순이는아까집을떠날때의 남편의말을 생각해보지안흘수업섯다

『올수리(단오)날이 솟구 보름이 넘어잇는데 이제부터 댕긴사다멀해? 그럴돈이 잇스면 술을 사먹지!참오늘은 강냉이한말사구 남는돈은 술이나 한잔사먹어야겟군』하든 현보(賢輔)의말에 순이는

『흥 그래만보갓다!난 아에다라나구말걸』하고 댓구를 하며 남편을따라 우섯지만 지금 보면 그때 현보의말이 노상농담만도 아닌것갓다

정말현보는 남은돈으로술을사먹는것이나 아닐까?술을 그러케조하하는 현보의일이니、정말 그럴는지도 모른다고、순이는 점점 불안스러워서、이제는、집뒤언덕[illegible] 멀리를 바라보앗다 그래도 아모것도보이지안햇다 순이는 집압헤잇는 느티나무아래 황당에 올라가서 제발 남편이 신과댕기를 사오기를 축수하고나서 정말 댕기와 고무신을 사가지고오지안흐면 사생결단으로、쌈을보리라마음먹엇다 그래도、마음은 노히지안엇다 그래、가만잇자 현보가 술먹어본지가、벌서 한달ㅣ아니、허좌상네 제사때 먹은것이 마즈막이엿스니 벌서 두달이나 되엿다 정말、오늘은 댕기살돈으로 술을 먹는지 모른다 그러기에、아직두 안오는게지 숫(木炭)두섬 팔어서、강냉이(옥수수)한말하고、댕기한감에 신한켜레 하기는、작까닭것이 아니냐?술만 안먹는다면 벌서 도라오지 오래엿슬것이엇다

저녁해가 천마령넘어로 넘고말엇다 산골짜기에는 산듬바람이 아직도 불고잇섯다 나무이피 어린아기처럼 우수수떨어지고 그런저녁이면 의례 뒷산푸메에서는 부헝새가 운다 순이는 점점 불안스러웟다。밥을 담어노키까지 부엌문턱이 달토록 드나들엇지만 아모런 소용도 업섯다 밥을 담어 노코는 가만히서 기다릴수가 업서궤하니 언덕길을 내려갓다 언덕길을 다내려가면 다시 이번에는 언덕길을 올라야한다 이언덕이라는것이 이른바 삭철마、귀성철마(龜城天摩)삭주(朔州)철마、의주(義州)철마라는 큰령이엇다 이재는 경계로하고 귀성、삭주、의주세군으로 나누어진것이다 이철마령은 꼭대기까지 오르자면 십리는 넉넉히 되엿다 순이는 갑분숨을 쉬일새도업시 두활개를치면서 올라고 꾸부러진고비를 올때마다 고개를들어 머리우에보히는길을 처다보군 하엿다 장에갓다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아왓는지 간혹한두사람식 보힐뿐이엿고 멀리서 장꾼들이 수근거리며 올때마다 행혀현보가아닌가하고 가슴을조이곤하지만 정작맛나면 생면부지인 남이엿다 그런때면 순이는 가만히 한숨을쉬면서 맥풀리는 다리를 거누며 거누며 언덕을 올랏다 언덕을 오르기만하면 그다음내리길 십오리는 한눈에 바라볼수잇섯다 순이는 점점 밸머리가 떠올랏다 제길!맛나기만하면 대비산지 멱살을 부여잡고악다구니를 쓰리라하엿다

定平

咸南定平郡長原面用山里 金龍鑛業所 鑛主 金仁澤 (自宅咸鏡線定平驛前)

咸鏡線定平驛前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旺城鑛業所元興金山指定 三和鑛山株式會社荷扱所 百原組專屬貨物取扱 分ヤマカ運送店

定平驛前 ⊙定平代行營業所

定平郡長原面長者里 用興金鑛 田鳳秋 洪在洙 黃全伊

咸南定平 李會稷

定平邑內 孟進淑 韓冕璜

定平金融組合 組合長 崔鎭漸

府內面東川里 學校評議員 高宗瑀

咸南定平邑 濟世醫院 院長 張好瀞

定平驛前 仲山醫院 金鼎萬

廣德面香洞里 有志 李培學

朝鮮咸南定平郡宣德市 宣德百貨店 主 金成錄

廣德面長洞里 醫生 韓興格

定平邑內 一興屋 主 劉永璽

文昌面文昌里 學校評議員 元東郁

定平邑內 絹物貿易商 東和商會

定平印刷所 主 成泰柱

定平驛前 織物貿易商 南興商會 主 金禹鼎

朝鮮咸鏡線定平驛前 有名賣藥 衛生材料 滋養劑類 化粧品類 都散賣 大壽堂藥房

定平邑內 定平購買組合

定平郡府內面鳳鳴里 三重農園 主 金善敎

廣德面新川里 廣一學校 職員一同

府內面龜上里 鄕校掌議 李魯燮

定平驛前 綢緞布木商 金鎭高商店

府內面東川里 面協議員 元鍾洞

宣德面湖南里 面協議員 朴侯鎭

咸南定平郡觀見寺 住持 崔南基

定平邑內 定平タクシー

定平驛前 無名氏

料理屋 長春館

宣坪驛前 嚴鐘白

宣德面新南里 面協議員 兪□□

宣坪驛前 李□杰

府內面興城里 金水月

鎭興

鎭坪面翰洞里 須磨鑛業 翰洞金山事務所

咸南永興郡鎭坪面天島里 實幕金山事務所 李投元 李□玉 朴承澤

鎭坪面事務所 憶岐面事務所 虎島面事務所

鎭興公立普通學校 古寧公立普通學校 憶岐公立普通學校

鎭興釀造場

鎭興市 和洋百貨卸商 黃楨三商會

憶岐面德下里 憶岐面協議員 憶岐普通學校學務委員 黃芝洙

馬場驛前 馬場釀造場 姜明洙

鎭坪面鎭坪里 金衡相

鎭興金融組合長 朴濟憲

鎭坪面天島里 永興郡學校評議員 金貞武

文川郡明倫面 新進學校

鎭興市 公醫 乙部勇

鎭興市 東和醫院 金勝煥

咸鏡線旺場驛前 永平鑛業所 李鎭萬

鎭坪面翰洞里 金相悳

永興郡鎭坪面臨峰里 南石穴金山供給所 金學源

憶岐面 九灣里揚水所 文京學 文基鎬 趙炳鎬

憶岐面九灣里 金泉農場

咸南鎭興市 大東商會 金明燦

鎭坪面翰洞里 朴斗燮

鎭坪面翰洞里 揚水機主 邊珏祚

古寧面新興里 白賢相

永興郡古寧面三峰里 藤田鑛業株式會社 三峰鑛山 鑛主 南基

仁興面浦中里 金南極

鎭坪面臨峰里 南石穴金山 吳任熙 鄭明瑞

鎭坪面翰洞里 張禮鳳

鎭興市 亞細亞洋行

永興郡鎭興市 金昌烈商店 黃載賢

憶岐面興福里 憶岐面協議員 金瀅樂

咸南鎭興市 原參治

鎭興金融組合

鎭興市 三成商會 郵宗九 張東明 崔斗玉

鎭興市 綢緞布木 韓弘傑商店

永興郡鎭興市 米穀貿易商組 鎭興商會 河允 趙元衛 韓炳烈

永興郡虎島面原平里 定平醫院 車南正

鎭興市 松京洋服店 元容根 李東實 許賢五

藤田組 翰洞金山 上田四郎 金麗源

鎭興市 高金鉉商店

鎭興市 酒類酒類散賣 金正淳

鎭興市 綢緞布木 東昌商店 主 鄭義烈

咸南永興郡鎭興市 和洋百貨 張寬厚商店 主任 許在周

憶岐面梧浦里 朴章根

古寧面青鶴里 東明學院

永興郡鎭興市 菓子店 豐興 主 趙炳洛 洪鍾永

鎭興市 綢緞布木 東一商店 李永祚 趙洪允

鎭興市 九興商店 吳允瑞

鎭興市 鍮屋 鄭元吉

鎭興市 鐵金物洋磁器 泰成商店

鎭興市 尹好鎬

鎭興市 大坪淸太郎

古寧面中興里 尹學彦

永興郡宣島面原上里 尹弼祚

永興郡古寧面蓮洞里 金正憲

朝鮮日報社 鎭興支局 支局長 劉應鍾 總務 李東燦 馬場分局長 朴永俊 旺場分局長 金昌善

鎭南浦

龍岡黃龍會

鎭南浦後浦里 和洋百貨 永昌洋品店 徐相峰 電話一〇二二番

人間性의 問題와 近代的文學精神 (三)

金龍濟

白鐵君이 千百番이나 自己辯明을獻하는 唯一의 武器는 過去푸로文學의 創作方法에 잇서서의 『政治主義의誤謬』라는 文句이나 그는 果然 所謂『政治主義』를 修正한 正當한 發展的 自己批判우에

「立」

하야하고잇슴가? 白鐵君의 態度와 理解는 自己批判이 아니고 自己逃避이며 感情的機械的反撥에 지나지못한다。所謂『政治主義』의 誤謬의 主眼點은 創作 方法上의 技術的問題에 잇섯든 것이고 決코 近代的 文學內容에서 『社會性』『政治性』을 無視抹殺하라는것은 안이다。第一 그러한 現實이 絶無한以上 그러한 文學의 存在가 엇지 可能할가?

人生觀에 잇서서의 個人主義와 文學史上에 잇서서의 自然主義가 陳腐한 時代錯誤的 形態임은 今日에 잇서서는 벌서 常識化된 問題이다。

近代的 人間生活에서 『社會的個性』이 『一般的』이라는 名目下에 沒却하고 游離하고 動物에 對應하는 全想的人間의 末梢神經만을 具體的『人間性』이라고 보는偏見은 人間的理解의 原始的錯覺이며 野蠻的 非人間的『虛僞主義』에 不過한다。이러한 內容의 文學作品이 近代的 文學精神과 相反하는것은 瞭然한 事實일것이다。

다시말하면 變態的自由主義者로서의 白鐵君의 矛盾의悲哀는 존바의 人生觀과 藝術觀이 同一한 傾向을 가저서는 안된다는 虛僞的特殊性을 主張하는點에잇다。이것이 一種의 不可解할 虛無主義가 아닐는지?

「文」

學者라는『非社會人』은 同一한作家가 가진 『政治主義』的創作方法論이 修正될 誤謬와 理由는 文學者의 近代的人生觀、藝術觀에잇는것은 아니고 그와는 全然反對로 近代的人生觀 藝術觀을 가장 眞實하게 合理的으로 表現하라함에는 『政治主義』的創作方法으로는 不充分하다는點에 잇다는것이다 그리고 그의 發展的創作方法論이 새로운 『리알리즘』이라는 課題이다。

白鐵君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新興文學의 固定化 類型化와 함께 그소위 客觀이라는 固定된 基準과 公式의 追隨에 依하야 人間의主觀的複雜性과特殊性을얼마나 無視해왓는가?』고。客觀的現實은 그가 말하는바와가티 『固定된 基準』일가?

「歷」

史的過程에 잇서서의複雜한 各個의社會的現象은 變化的流動性에 차고잇는것은 그가 盲目的으로主張하는『人間의 主觀的複雜性』과 同樣으로 現實的具體的事實이다。그리고『人間의 主觀的複雜性과 特殊性』도 이『固定되지 안은』生生한『客觀的現實』의 複雜性으로서 釀成된 部分的要素이며 『人間의 個性的特殊性』도 亦是 客觀的인『社會的個性』으로서 有機的關聯下에 派生되는것을 理解치못하는것은 自然主義文學論者의 顚末的解釋이며 現實的色盲觀에 不過한다。

그러함으로 白鐵君이『探求』하는 一般的 全想的『人間』과 그의 傾向은 『人間다운人間』이나 『人間다지 못한人間』을 同一的으로 無批判的으로 白眼視하는『人間』이며 따라서 近代的社會性과 人間性의 眞善美를 肯定하고 그것을 熱情的으로『探求』치도안코 同時에 그의 [...]를 否定하는 [...]批判下에서 『探求』하라는 態度가 아이라는것이다。그곳에 近代的意味에잇서서의 『新興文學』의 『活路』가 展開될수잇슬가?

一漢詩一

題松 桐岡 考選

押松

三等之六 義州郡枇峴面督馬洞 張正立

亭亭特立萬年松 長帶春光不改容
一寸蒼髥寒乂碧 數重赤甲老逾形
固守山林君子節 愧深官爵大夫封
淵明去後無知己 高士盤桓更未逢

管絃樂團待望論 ③

金管

아메리카의 온곳과가티 十六七의交響樂團이 各都市에잇서가지고 그것이各已標準的인『싸이즈』와技倆을가진 常設機關으로서되여잇는경우는 마침 씸니ー포•오케ー스트라라는것은 한개의『巨大한樂器』와가튼 存在物로서

看取

케되나 이러한것이무론 아메리카에限한 일이아니고 歐洲諸國(諸都市)에잇서서도同一한것이다

우리樂壇에서도 극히 最近일로 몃몃有志가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의 設立을 爲하야 어느만한程度까지는 그組織形態를맨들어노왓다고한다。

그것이 처음에는 가장消極的인것이 아닐수업는줄은안다 그러나 우리가 要望한지 이미 數年이되엿고 그런集合的演奏形態가 恒常計畫에만 끄치고말든 곳이라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의 成育을 雙手로 同意하는것은 뉘나다가튼心情일것이다。

씸니ー포•오케스트라의 設立과 並行되야서同一한 集合的演奏形態인 合唱團의 [...] 수잇다 音樂人이거나 音樂에 關心을가지고잇는사람들의 大部分은 合唱團에 對한 希望이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보다 쉬울가고생각하는것은 自然일는지 모른다 그것은經濟的條件에크게 左右될것이며 單純히 朝鮮사람의 天性이 聲樂에잇다는것으로서規定될 問題는아니다 다만 經濟的 條件이 左右될것이라면 그것만이아니라 우에서도 말햇거니와 오늘까지의 朝鮮樂壇에서

聲樂

이 占한 優位가 一見、合唱團이 씸포니ー、오ー케스트라 보다 쉽게設立될것이라는 俗見을 나케하는 것이다。合唱團이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보다 그設立이 쉬울다는것은 外面的인것에 不過하고 그것들의 組織體의 表現能力과 技術等의 優劣이 처음부터 要는 오날朝鮮에 잇서서 標準的인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와 合唱團이 생길만한 時期에 다다랏는가 아닌가가 實際問題이다。돌보건대 昨年까지 거러온樂壇的 活動은 全無하다시피 無氣力한것에 一貫하얏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樂壇이란 特殊地域에 잇서서의 일이고 一方레코ー드 라디오 토ー키ー等의急速한發達과 그것들의 音樂에對한 關心과 아울러는 民衆의귀(耳)의 肥沃은 他方 樂壇에對한 그들의批判的態度가 기며가는것과 並行되야 가는것을 알수잇다 패라독스로서 이를말하면 朝鮮樂壇은 레벨이노픈 聽衆과民衆에게 이끌리여 나가는 感이 엄지안타

段階

에 到達한 必然的인 그 것은 여기서 必然的인 그 또는 씸니ー포•오케스트라의 設立을 欲望하는것이다

昨年本紙新年號에서 洪蘭坡氏가 樂壇의 讀者와集團的形態를 論하야 말하되 合唱과合奏의組織體를形成하는것이 緊急하다고하얏슴을 今年에와서 다시한번그것을 强調하는 세음이 되엿스나 그러타고 强調하는대서만今年도 지나가리라고는할수업다。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의 設立을 今年에잇서서 어느程度까지 그基礎를 完全히 하기爲하야서는 그經濟的問題는 여기서말하지안트라도 그組織體의 技術的訓練을克服하기爲한 努力이첫재로잇서야되겟다고生覺한다。

課題를바든範圍는 씸니ー포•오ー케스트라나

合唱

과가튼集合體의演奏形態를 오날樂界情勢에 비추어서 말하라는것이엿스나 쓸말은만코 紙面은적어 결국龍頭蛇尾로 이글를끈이게된 것은 大端遺憾으로 生覺합니다。具體的으로는 다른機會가잇스리라고 스스로期約해 두기로하겟다。(끗)

戱曲 晩景 (全二幕) (六)

新春文藝二等當選作品

韓相稷

昌童 (이마웃다시며) 에이 예편네 주착때문에 (대청을 건일다)

(大門안에서 말소리 들리드니 翔鳳드러온다)

翔鳳 아버지 거기 게서요

昌童 듯기실타 (화를낸다)

翔鳳 아버지는 펜이 그러셔

昌童 어디 그럭게 도라다니니 커단 계집애가

翔鳳 요아페가서 멀좀 사가지고 왓서요

昌童 무슨돈을 그럭게서 거냥 색기니

翔鳳 아버지는 어머니나 돈을 주지 언제 저한테주셧세요。외루하나 해달래도 드른척도 안하시구 아버진 너무하세요。

昌童 그래 무엇이 넘우해 (입을 찌푸리고) 나는 너희들 키까지 구할을 바라야 하니。

翔鳳 저이가 언제 아버지를 그러케 헐단말이세요。아버지가 되려 그러시지。오빠일을 어떠케실려야요。

昌童 그놈이 나를 버리지、내가 그놈을 내쫏찻느냥

翔鳳 아버지! 자식까지 인제는 이즈실니까?

昌童 (도라서며) 아니다 나를 그러케 (숄끄게)

(鳳玉 드러오다가 몸을 숨켜 엿듯는다)

翔鳳 어서 오빠를 드러오게하세요

昌童 (다시 도라서며) 걱정 마러라! 그러구 외루는……(鳳玉이가 엿듯고 섯든것을보고 말울때 끄친다)

鳳玉 (서울내고 압울 좋은 목소리로 밤앞을친다) 그래 너 아버지 허락 헌말이 무에냐? 왜? 내가 잇스면 아가리가 맥히니、어서 나와해라 내흉을 보든지 욕을 하든지 ……내가 잠간 뵈지만 안흐면 애비자식들이 입을모아서 형구들이니 대체 무슨 욕들이냐? 한번 맛대노쿠 해봐라 왜못하니? 왜못해?

昌童 여보!(昌童를보구)외루는 무슨 외루요? 나는버선한짝 안해주면서 제자식은 맵시원짜리 외루를 턱턱 해주우 어디봅시다 당신 딸테리고 잘사나 못사나(돌살을 부립다)

鳳玉 (서울내며 큰소리로) 저 에돌 물레 옷이나 때물놀좀해 주엇소 어째서 그런 빤스런 말을 하우 (마루에서 나려와 안으로 드러간다)

鳳玉 어디를 보자 봐! 이년놈 (덧마루에걸터안는다)

(翔鳳이가 노래를부르며 드러온다)

鳳玉 (압울서서)시끄럽다 나가노라라!

翔鳳 (압울서을통하고 나간다)

鳳玉 어멈! (안에다 대고 부른다)

食母 네! (부억에서 나오며)

鳳玉 내 이놈의 집에서 못살겟네 애비자식이 입을모아서 나하나만 욕을 해대니 오장육부가 썩은편이기루서니 이런집에서 살것나 난 당장나갈테니 우리 아들좀 불라다주우

食母 글세 아씨 왜? 또이려세요 참고 사시는게 젤입지요 그럭타고 화만 내시면엇 하니까

鳳玉 아니야 여직근 참아왓드니 도리어 얏잡아보는 모양이야 나만나가면 그만아니우 어서 불러와요

食母 (혼자 걱정하며) 그서방님이 어데게신줄알구

鳳玉 어디잇긴 어디잇서、蘭香이네집에 가보면 알지안소왜 병중맛게 저래

食母 원 서방님도! 아버지한테 어데다 쓰는돈으로 기생방엔 어쩌자구 단여

鳳玉 그래 어멈! 어멈이 주는돈이기에 걱정인가 개쓰는돈가지고 개쓰는데 웬 잔말이야 어멈때문에 이집 부자되겟군 흥 아니꼽게

食母 언제 제가 그러케 헌맙인가요

鳳玉 글세 얼른 모서와

食母 (혼자말로) 이끌늙하고종노바닥 기생집엘 어떠케가나

鳳玉 (後쏭을을한듯이) 내가나가면 걱정잇는줄아니 네놈의 자식가리 내자식이 부랑잔줄 아니 내가 나가면 너히들은 못살어도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산다。

食母 거저 그러지 마시구 곡참으세요 내맘대로 되는 상이래야 말입죠

鳳玉 어멈도 오늘안으로 나가우 어멈은 내가 불러온 사람이니까 이러구 저러구 나헌테 걸리가 잇서 나나간 다음에도 이집에 그냥잇스면 뱅어나 고년놈의 자식들이어떤 깍정이 들인데。

食母 그런말 맙시요 이래졌은 서방님이나 아가씨가 어떠케 조호시게요 난 화생양반으로 그러케 점잔음분은 못봣서요

鳳玉 흥! 어멈도 이집편일세그려! 그럴테지 뒤로진 돈푼이나 바더쓰고 내업는줄이나 파 바칠테니까 이놈의집 자식들이 어멈을 조와하는 줄아니 어멈도 내가 안이엿든면 오늘 이때까지 못부터잇섯소! 그런줄이나 알우?

食母 (약간분개해서)달음 마세요 제가 언제 그분을 헌테 뒤로 돈을 어더썻단 말슴이세요 원 큰 변날소리시우、그래 내가 이런 헐구즌 집에서 안잡재기 노릇을 할망정 그러케 속이 더러운줄아시우 내가 무슨 잇속을 보자구 아씨 헌당을 하단 말슴이요 그려타면 당장에 베락을맛겟서요

鳳玉 듯기실혀 이망할것을 너히들 어디 넘켜잘케 해보아라 누가잘되나 보자 (우룸을 터리면서) 어이구! 분해라 싯퍼러케 젊은년이 무슨팔자로 이놈의집엘 드러와 이꼴 요 모양이 돼단말인가? (大門간 쪽으로 올며나간다)

昌童 (안에서나오면서) 여보! 여보 이게 무슨꼴들이요 남부끄럽소 (食母를보고)왜 저러시나?

食母 저두 자세 몰겟지요 저보고 공연히 꾸중을 하시드니 우시고 그러십니다 그려

昌童 저이가 암만해도 밋첫지 섯하고 저럴수가 잇나? (房쪽에다대고)애형애야 (부른다)

翔鳳 (나오며) 네?

昌童 저 어머니좀 모서드려라

翔鳳 (찌푸리고마지못하야 마당으로나려오다)

金女 (드러오며)아이구 형님이게 웬일이시우 네?아저씨! 저 형님이 왜그려서요(鳳玉을 끄러드린다) 글세어게 무슨 짝이시우 안으로 드러가 십시다 형님!

鳳玉 (끄려드러오며)여보 아우님 난이래선 이집에서 못살겟소 나를딴사람처럼 따돌리는구려 자식들은 계모라고욕을안하나 영감은 후처라고업쓰여기지를안나?

金女 (共鳴하는드시)저런! 고를 얏잡아 보는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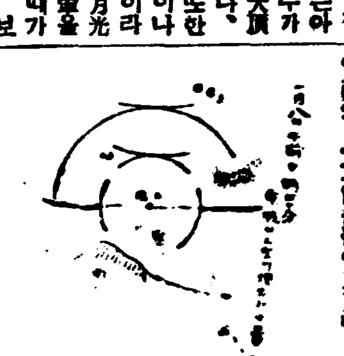
鳳玉 그나 그뿐이요 어멈까지 나 얄밉해라!

鳳玉 내가 이놈의집에드러와서 종의종노릇을 햇슬뿐이지、큰아들 자식은 나를 원수가리 역이지 조 계지배는 나를내 애비헌테 쏘군쏘군하고 욕을 하는구려

天空의 異變 日暈에 對하야 (下)

京城測候所 鄭泰埈

그러나 이現象은珍奇한것은아니다。然而實際上이 나오는때에 太陽을 中心으로한 周圍의日暈을 잘注意하야보면 光環에 全部는아니보이드라도 一部分을 볼수가 잇다 어떤때에는 日暈에 天頂에 相當한 部分이보이기나、傍切光弧만 보이기도한다。또한 月의 周圍에 日暈과가튼環이나타나기도한다。이것은 月暈이라고하는데、日光과比較하야 月光은 그光이 甚히弱한故로 暈을 現出할程度까지 이르지못할때가 만흔故로 그다지 쉽게보기가어렵다 暈의 現象은 上述한것은 普通이나 이밧게 各種의 特殊한것이 出現하나 勿論 이것은 大體히 보기드문것이나 氣象上으로는 興味가 기픈것인故로 二三例를들어보겟나 勿論自身도아직 그러하다고보지 못하엿스나 記錄에依하야보면



太陽柱 이現象은 日出 或 日沒의 [...]하야上方에約十五度乃至二十度의 노피로 垂直으로서서잇는 光柱로그先端이 彎曲하다 北極地方에서는冬季에 나타날때가잇다는 것이다 이것은 暈의垂直線의 一部에不過한것이다 即 空中에 板狀의氷晶이 無數히浮游하야잇슬때에 日光이 그底面부터 反射하야 出現하는 現象이다 太陽이 地平線으로 나오기前 또는 暮어간後에 보이는故로 紅色으로보인다

十字光 이現象은 太陽을通過하는 垂直光帶와 水平光帶가 同時에 보이는 現象으로 大端히 稀有한 現象이다 이것은 太陽이 地平線上에 잇슬때에 太陽柱의 現象으로 이때는 柱와太陽의 上下가 나타나는데 大端히 短少하다 이것과 同時에幻

[...] 에對하야는 大略上述과 如하나 지난八日 午前十時三十分頃에本測候所에서 觀測된 暈은比較的顯著한것으로 그暈圈는 別圖와 如하나 數人은 太陽이 三個로 보인다고 하엿는데 太陽의 兩側에 太陽과가티보이는것이 即幻日이라는것이다 이와가티 肉眼으로 明瞭히 보이는것은 年一二次는 잇슬는지 或은보기가어려운現象으로 우리氣象界人으로는 異常現象이라고한다 氣象統計上으로보면 日暈의現象이 現出한後 數日中에 天氣가 急變한다고말을한다 即今冬은 그리冬季다운 추이가 업섯는데 或은數日後는 酷烈한 寒氣가 올는지 이것은 내自身의 豫想이다 또한 中國文獻에 비추어본다면 大槪不幸한 事件 即戰爭이 난다 무슨變故가생긴다고써잇서 그다지 조흔條件은 아닌것과가티記錄되여잇다 끗

學生作品

「小品」

寂滅의 밤

世專 盧英三

나의맘을 한업시 고요하게하는 달밝은 어떤날밤이엿섯다。고 달밝의세계를 끗속까지 전신에 호흡하고 잇섯다 어데라고 지목할수잇는 곳에서 솔삭솔삭 끈칠없는 소래가 들리여온다。나를 말하여주는 소리와갓다。

나는 뒷놀에 안저서 맑고가는 달을 바라보고 잇섯다 고요한 그달을 바라보고 잇섯다 자연의 가벼운솜소래를 드르면서。또는 달비치 가득찬 뜰악을 한아름에 안고서。그들악한 모퉁이에는 포푸라나무 하나가 죽은듯이서잇섯다。나는거기에서 고저히잠자고잇는 한마리의 조고마한참새를 봣다。그참새의조고마한 몸뚱이가 떡귀여워도 그리고 달비츨 전신에 한것밥은것이 더욱 아름다웟다。그놓몸인것이 나를 더생각하게한다

그때 나의머리속에는 전에입이 경험하여본 험악한풍랑이 一한생명을 후려삼키는 그무서운풍랑이 지금 또무엇을 삼킬라구 저세게끄레서부러 입을버리고 점점다어드려옴이 완연하다

나는 경든구름이 그 저곤 그 팀자를 휘덥지나안흘까 근심하여 보앗다。혹 나무닙이 팔낙이지나 안흘려나 근심하여봣다 나의숨결의 거츠른파동이 그부드러운털에 측감되지나 안나하고 숨을 죽이엿다。나는 이처럼 한생명을 위해서 조심해본 적이 업는듯하다。그리고 그조고마한생명이 ―아니 그조고마한영혼이 이러케나 나의영혼에 접촉하여본일도 업섯다。그것은 마치 조고마한 무슨원호과가티 나를 유혹한다。

밤은 고목나무처럼 고적하다 소녀의얼굴처럼 아름답다。호르는 시내물가티 맑다。그러나또 죽엄과가티 무섭기도 햇다。그리는 눈을 가만히 감엇다。그러게 보인다。나는 그때와가튼몸안과공포를 늣끼기 시작햇다。나는 눈을 떳다。참새도 그대로 호르고엿다。달비치 여젼히 전과가단다。그러나 나는가슴속에 어떠한 파장이심한 물결이 호름을 진정할수는 어섯다。

그때엿다。무슨소래가 순간에 나의귀를을 치고지낫다 너무도 짧은 시간이여서 그소래가 무슨소래엿는지 확실히 분간할수 업섯다。분명히 무슨소래가 또 한번나의 등뒤를 도라보앗다。나는뒤를 도라보앗다。

『야—옹』

『앗—』

검은 고양이다。요염스런운 고양이다。검은악마와갓다 그것은 악마가 초롱가튼 눈을 번득이며 담청밋 으슥한곳으로부터아장아장 기여나온다

『야옹 야ー옹』

참새가 풀곳 잠을 깻다 그조고만눈이 불안으로 동그래젓다 목을 움츠린다。

『야앙옹』

고양이가 살기를 빼치며 닭장으로 뛰어오르자

『프르렁』

소리와가티 그한머리의 참새는 날려가버렷다。

그리고 다시는 도라오지안헛다 어데론가 영원히 자최를감추고말엇다。고양이도 담넘어로 사라젓다。

원누리는 또다시 죽엄가튼 고요한침묵으로 도라갓다。결푸른 바다와가튼하늘。달비치 여전히 교교하다 아!화멸이다。나에게 무서운환멸을 주는 달밤이다。

『그조고마한 한마리의참새。아 그여자의 원혼이엿다』

나는 시체와가티 사늘해진 얼골로 방에드러왓다。자리에 누어서도 그조고마한 한마리의참새의 환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안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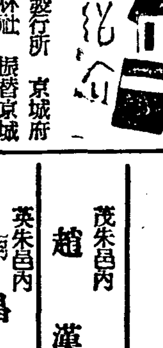
그날밤 꿈에 그여자가 보엿다。엷다선살먹엇던 그어여쁜소녀의얼골이。오늘밤 달빗과가티 싸늘한 그여자의 얼골이。오늘밤 어데론가 사라진그한마리의 참새와가튼 그소녀의 처량스러운 양자가。그리고 바람소래와 가티 나를부르고잇다

學藝面新設欄

學生作品欄 中學校以上專門學校大學等의 在學生으로서 研鑽의餘暇에 지은佳作을 收容하고저 學生作品欄을 新設한바研究論文、讀書後感、紀行文、書簡가든것을 考査採錄하되 佳作은 薄謝를 贈呈하겟스며 氏名과 在籍校名의明記를 要함

紙上顧問欄 在來의讀者社交室을 廢止하고 紙上顧問欄을 新設하는바 이것은 讀者中에서 日常生活에必要한 質疑를 藥書로 簡單하게 무르시면 本室擔任記者가 一一히 親切하게 解答하여드리기로 되여잇다。但同一한性質의問題는一個解答으로應함

朝鮮日報社學藝部



▲風林 第二輯 發行所 京城府慶雲町九六 風林社 振替京城二六〇三六番 定價十錢

▲靑年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農民生活 新年號 發行所 平壤府瀛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信仰生活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慶上里七ノ四四 信仰生活社 振替京城二〇〇九一番 定價十錢

▲기쁜소식 一月號 京城府竹添町三丁目二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朝鮮織物月報 第二十二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二三 朝鮮織物月報社 定價十錢

▲朝鮮地方行政 一月號 京畿道版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六九 朝鮮地方行政學會 振替京城一四七〇二番 定價五十錢

▲詩人部落 第一輯(內容)流星挿話 院과가마귀 少年行 娼窟 눈 오든남 안개 海航圖 園花蛇 疑惑 現代詩의主知와主情(詩論)等 發行所 京城寬勳町一二四 詩人部落社 振替京城一三六四二番 定價二十錢

▲更生 一月號 發行所 廣島縣京崎町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京崎療養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二番 定價十五錢

賀正 茂朱

全北茂朱邑 金曜會

茂朱警察署 警友會

茂朱郡廳員一同

茂朱産業組合 振替京城一七六七二番

茂朱金融組合 職員一同

茂朱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茂朱郡茂朱邑內 李愚升

茂朱郡邑內 明進洋服店 陳德基

各種印刷 和洋諸紙 謄寫版及付屬一切 全北茂朱邑內 金城印刷所 振替京城二五一〇一

茂朱郡邑內 申鉉熾

茂朱邑內 趙漢喆

茂朱邑內 南昌商會 李基南

茂朱 同信商會

茂朱郡茂朱邑內 茂朱館

茂朱郡茂朱邑 赤星寫眞館 李晶基

茂朱和信連鎖店 開城百貨店

茂朱面職員一同

茂朱郡邑內 茂朱果樹園 振替京城二五七六七番

茂朱郡邑內 茂朱釀造組合 代表 陳福基

茂朱邑內 迎春館 主 李會煥

茂朱郡茂朱面邑內 黃浩淵

專賣局茂朱販賣職員一同

茂朱郡邑內 壽星金物店

茂朱郡邑內 昌信百貨店 文昌根

茂朱邑內 李花閣 主 李東俊

茂朱製糸染織工場

茂朱郡安城市場 安城釀造場

茂朱郡邑內 全州地方法院茂朱出張所 森政太

茂朱邑內 茂朱齒科醫院 韓茂洙

茂豐三仙酒造場 金奉根

茂朱郡赤裳面 職員一同

立石

朝鮮日報社立石支局 支局長 林春甲 顧問 高漢奎

私立立石幼稚園 園長 高漢奎 園監 朴在極 保姆 李道淡

平原郡西海面補德里 崇實經濟農場 許議

立石醫院 院長 京城醫學士 李三枝

安州郡立石面南道里 私立壽星學院 院長 李能燁 敎員 邊重富

安州郡立石面龍池里 私立龍池講習所 所長 金炳河 所監 金埈鎬

橋洞

橋洞鑛業所

朔州郡橋洞 自力鑛業所 崔容田

朔州郡橋洞 金達漢

朔州郡外南面銀倉洞 義合鑛山用達 元學瑞

朔州郡橋洞 日出商店

若返リ美養素

자랑할만한이 特長

① 구라부가데이洗粉에는絶對的輕妙性이업고柔軟한皮膚의洗料로는더말할수업스며小兒들의柔肌에도썩조타

② 軟水는勿論水에도能히美粲素로서滑捷、美肌의作用首務揮한다

③ 아루가리性이 업고純粹原料의效果로서洗髮料以上으로效果的이라고常用者가激增하고잇다

④ 布袋에너흔습으로使用하기에大端히便利하고最後까지몃번이든지使用할수잇서經濟的이다

⑤ 使用後에도優雅한芳香이잇서살결을香氣롭게하는그爽快感은구라부가데이洗粉에獨特한것에하나이다

KK-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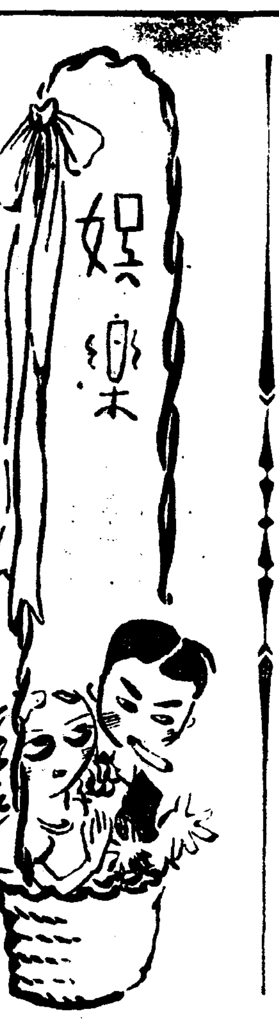
000765

單只살결의表面만을淸掃하는것이아니고구라부가데이洗粉은살결깁히獨特한科學的으로生生케하는美容效果를주는美養料이다 또한아모리만히쓴다할지라도決코살결을거칠지안케하며도리혀一層더血色을조케하며살결을스스로整調하는美容科學的인洗粉이라고大好評이다

クラブカテイ洗粉 (구라부가데이)

花形春信 (1)

寶塚倍賞ー(寶塚女王)ー이 女子의 高貴한 性格을 表現하는 明朗性과는 距離가 멀다 그러므로 처녀役보다는 차라리 生活에 疲勞한 中年主婦가 適役이 아닐가싶다



黃金國이야기
俸給은누가第一?
新聞王하ー스트
年收入이二百萬圓
렘풀은十位로七萬弗

黃色의나라ー아메리카에서 어떤사람이 第一俸給이만흔가? 勿論 大統領루ー즈벨트氏 일게다하고 더퍼지워서는 잘못알엇다 實相은 新聞王윌리암、란돌프、하ー스트翁이 首位라고하면는구나 意外로 알것이다 投資와 事業의 全收入으로는 暴力財閥의 主人 로머ー스·라펠드君도 잇고 록페ー라ー翁도잇스나 月給이나 俸給가튼것으로 따지면 하ー스트의 우에 설사람이업다

年額五十萬弗ー朝鮮돈으로 換算하면 約二百萬圓이나 된다하니 굉장하다

그다음 二位가 格林의女王메이웨스트孃으로서 M、G、M社長

스른ー氏의 俸給보다 十萬弗이나더만코 떼트릿히는 第四位로서 喜劇王챠프링보다 十萬弗이나더만히밧는것은 재미잇는일이다 어린애俳優로 샤ー리렘풀이 年七萬弗의所得稅를 밧치고잇스며 一九三五年度의 所得稅額이 今月六日 議會에通過되엿는데 그것을 基礎로하고 現在 米國內의 人氣俳優들의 收入을 살펴보면

○메이·웨스트孃 四十八萬二千弗
○마르네ー·떼트릿히 三十七萬三千弗
○人氣歌手빙·크로스비ー 三十一萬九千弗
○챠ー리·챠프링 二十六萬弗
○짜ー네트·게이너ー 十七萬弗
○샤ー리·템풀 七萬弗

等으로 年四十萬圓을 가지고 生活을 해나간다는 朝鮮映畵俳優에 比하야 兩極을걷는 對照라고할수잇다。 부러운 이야기임에 틀림업다

오ー엔스選手
폭쓰映畵에主演
타프댄스로五萬弗버러

伯林오림픽大會에서 世界記錄을 지은米國短距離王젯스오ー엔스選手는 大會가끗나자곳 舞臺에出演하게되엿섯다 그러하야지금은 벌서五萬弗가량버럿는데다 시廿世紀폭스社와契約하고 映畵에主演하기로 되엿다 오ー엔스는最近까지 뉴ー욕의 舞踊名手 빌·로빈손氏에게 타프댄스를 배워서 黑人本來의 댄스素質이나타나서 지금은 專門家가되엿스나 얼마젼 에띄·칸터의 紹介로 뉴ー욕의 스테이지에서 타프를 출때도 故鄕인 오하요州에서는 選手로서의態度가 問題되엿는데 今番映畵出演에對하야는 벌서부터 아마추어選手의 失脚問題가 一部에서擡頭되고잇다

銀幕夜話
監督夫人은出演禁止

朝鮮映畵『五건너마을』에서 조흔演技를보여준 安芳蘭孃ー그後에는 도모지出演하지안코 銀幕에서자취를 감추어버렷는데 安孃의편이어되든갓느냐고 그映畵의 監督羅雲奎氏에게 무러보니 羅氏는피우스면서『그女子는얼골이 못생겨서 映畵俳優될素質이업기에 出演을못하게하엿다고 시침이를떼엿다 女俳優難으로 허덕거리는 朝鮮映畵界에서 그만한 女俳優를버린다고非難하니 어떼어찟던 친구가 딱해서 『安氏는 雲奎氏夫人이랍니다』하고 가르처주엇다

딴은 自己夫人을稱讚할수가업서서 그처럼 얼골이못생겻다고 懇評한春史氏ー自己도 女孃(지금은 孃이될수업스나 映畵의世界에쓰는 文字를빌면 孃이라고한다)의 演技를누구보담도 잘認定하고잇스며 얼골도 그다지못생긴便이아니라 美人에갓가운것을 알고잇스나 웨그런지 映畵俳優로出世시키기가 실흔모양이다

當者 安孃은 날마다出演시켜줄것을 哀願하고잇스나 夫君春史氏 斷然머리를 흔들고잇다고

스피ー드出世記錄

最近에 出世한 사람으로서第一遜한 사람이누구냐고 물으면 世界映畵界를 통터러서 로버트·테ー라ー일것이다。그가 처음으로 映畵界에 발을드려노키는지금으로부터 二年前ー約二個年동안에 그는今日과가티 世界的人氣者로 出世되엿스니 스피ー드出世의 레코ー드를 가젓다고할수잇다。

방금 그는目下카르보와 함께『椿姬』에 出演中인데『椿姬』는場面만키로 이또한有名한 映畵다 이한개의 映畵속에 나오는場面數가 헤ー라ー의 二年間出演場面보다 더만호며 主要한세트數가 三十八세트 場面數가 四百餘場面이라하니 豪華映畵에 틀림업슬것이다

톤의感化

『쫀·크로포ー드』와『프란초트·톤』ー이두사람은 映畵를백히고조고만한 여가만생기면 무엇인지 귀속말로 속삭이고잇는데 그內容은 舞臺로 進出할 計劃을세우는것이라고ー톤이 元來舞臺에서오든사람이라 크로포ー드도 이사람의 感化를 바든모양이라고

게ー블의여트

크라ー크·게ー블은 目下 요트를맨에 빠저서 야단인데 요트를사랴고物色中이더니쫀바리모어所有의『인퍼라』號를 사드렷다。

엘만氏來東

現代의提琴家로서 最大巨匠이라는엘만氏는 一月八日橫濱에入港淺間丸으로 日本에오게되엿다 그리하야 當日多數人士의歡迎裡에上陸하야서 即時東京으로向하얏다(橫濱一月八日同盟發)

라디오

十三日(水曜)

◇午後六時 (平) 合唱과피아노 獨唱 張紿媛 伴奏 金姻愛 피아노獨奏 金信玉 指揮 朴泰俊
◇同六時三〇分 講演 人生과娛樂 平壤崇義 崔鎔瑢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金雄珏
◇同八時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타령 四、寧邊歌 五、아리랑 崔貞子 金秋月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楚漢歌 赤壁歌 金昌龍 鼓手 韓成俊
◇同九時 (東)피아노獨奏 一、베ー토벤作曲 奏鳴曲 長調作品五十三番…베ー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콘브리오 第二 同 몰토아다지오 第三 同알레그렛토모데라토 二、안단테파보리 長調…베ー토벤作曲 레모니ー드·크로잇차

十四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時調外 一、時調 二、遊山歌 三、제비가 四、달거리 崔蓮香 金泰運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眼病과비타민 羅元和
◇同六時 이솝이야기 崔鳳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方面委員이야기 鄭圭煥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朝鮮의樂家言 金日坤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竹枝芒鞋 아리랑
◇同八時三〇分 鼓手 丁元香 李素姜 『驪夜』二場 文苑作ー 配役ー
박서방……李化三
吉 孫……尹北洋
母……姜貞愛
吉龍의妻…李白姬
長 孫……柳大善
對 盜……姜祥洋
비 제……姜石福
俊 九……高基善
朝鮮演劇協會 演出 吳貞民 效果 效果班
◇同九時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大笒 金竹香 杖鼓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첼로獨奏
◇同六時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淸元
◇同八時二五分(東) 落語
◇同八時五〇(東) 浪花節

十五日(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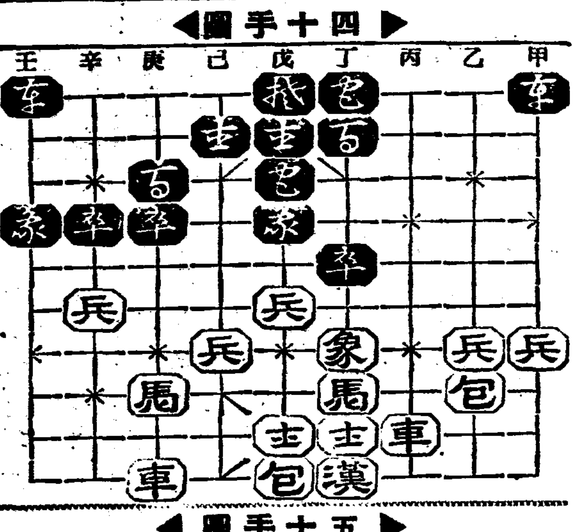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古談 所願成就 白岳
◇同一時十五分 常識講演 遺傳 申瑩雨
◇六時 幼年劇『고양이와쥐』 京城旺新童友會 指揮 金泰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一)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金雄珏
◇同八時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大塚淳
◇同八時三〇分 四節歌外 一、四節歌 二、양류가 三、베틀가 四、금강산타령 五、늴리리야 六、오돌독 任彩鳳 細笛 姜絃洙 短簫 崔壽成
◇同九時 映畵이야기 柳寅成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이야기
◇同六時(東) 歌物語
◇同六時二五分(大) 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八時(東) 管絃樂
◇同八時三〇分(大) 노래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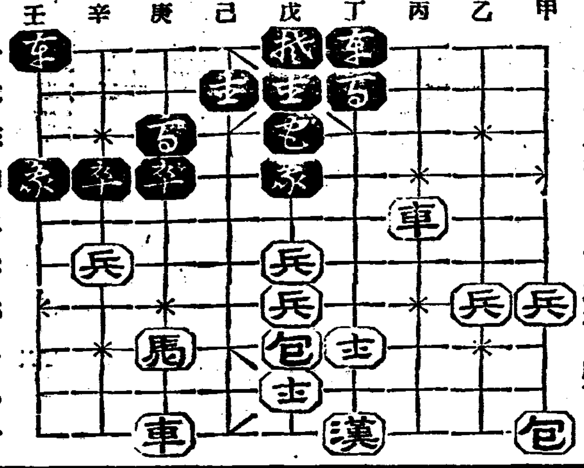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漢 李在鳳 楚先手 金復起

十四手圖



十五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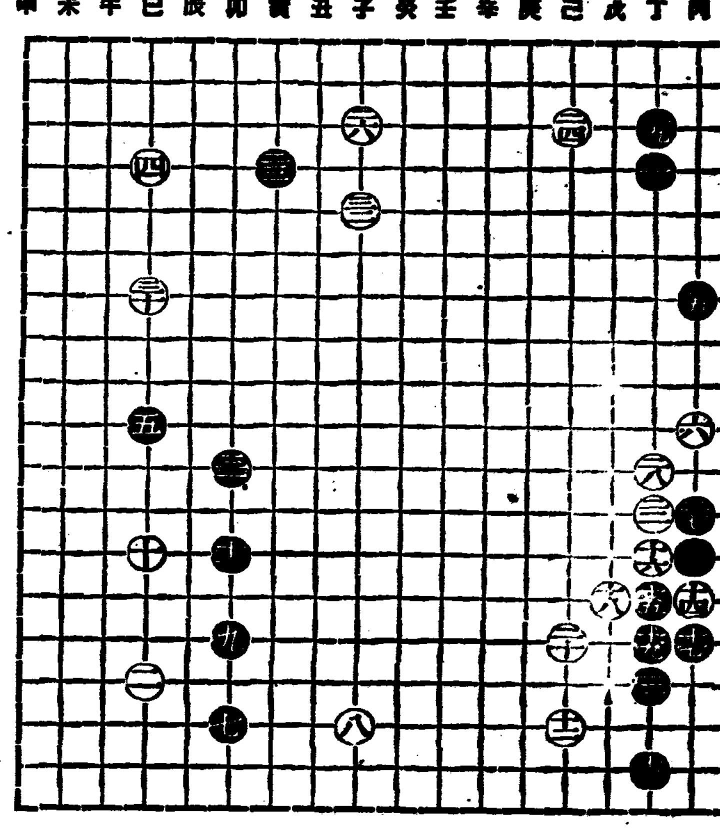
丁五[illegible]ー丙五
丙九車ー丙五打卒
丁一[illegible]ー丁七打象
己七兵ー戊七
丁七[illegible]ー丁一

戊十包ー甲十
丁一[illegible]ー丁八打馬
丁九士ー丁八打包呼將
甲一[illegible]ー丁一
乙八包ー戊八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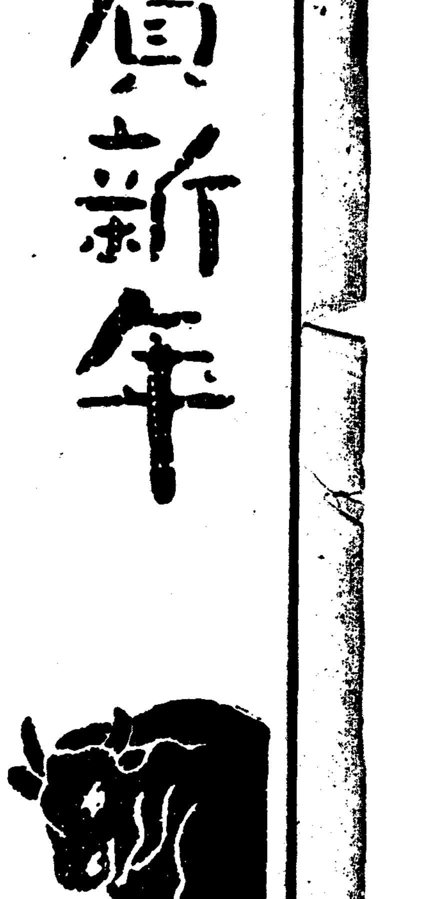
白 李淸性
黑先 鄭達源

●	一七	丙의十五
○	一八	戊의十四
●	一九	丁의十五
○	二〇	己의十五
●	二一	丙의十三
○	二二	丁의十二
●	二三	寅의四
○	二四	己의三
●	二五	丙의七
○	二六	子의三
●	二七	丙의十二
○	二八	丁의十一
●	二九	丁의三
○	三〇	巳의七
●	三一	卯의十一
○	三二	子의五



棊權文氏評曰 白이 戊의十四로 黑을偏하고 巳의十五로 列着함은 超一等善策이다 黑은 丙의十五로 擒치말고 戊의十四로 延함이 原則인가하노라

恭賀新年



大阪

大阪市浪速區蘆原町一一七一 絹布 綿布 毛織物 及 朝鮮物產 唐物雜貨商 **金瀅祺商店** 電話 櫻川四五六五番 振替大阪八六〇七三番 支店 神戶市林田區庄田町二ノ一四

土木建築請負 朝鮮料理日興亭 主 **安在福** 事安田組 本店 大阪市北區浪花町四(實島宮前町二) 電話土佐堀五五〇五番 支店 兵庫縣淡路洲本內通二丁目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二三三 古物問屋 各種ヘルメット帽製所 主 **崔龍漢**

大阪市東淀川區飛島町一九七 內鮮物產委托販賣 各種洋傘製造 **白賢植**

大阪市北區浪花町一〇六 信田硝子工場 鮮人監督 **李三吉** 本名 **李基春**

大阪市西成區北開二ノ九 販路製造 口金各種 自轉車用 小判鑑製造 **高田金屬製作所** 主 高明混

佛教聯合宗務院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七 金琦石 金鏡湖 孫鳳吉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七 鄭永達 大阪府豊能郡服部日鮮寺 金德祐 大阪市西成區旭南通リ五ノ一 申慈月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五ノ九 朴松波 兵庫縣武庫郡大庄村北字小岱三三ノ一 劉南俊 大阪市東區淸堀町三 李根道 神戶市灘區大阪通リ北六ノ一二八 李鶴榮 神戶市林田區尻池北町二ノ一一〇 邊知豐 大阪府中河內郡瓜破村大字西足代四五〇ノ一 金仁培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ノ三一 黃秀蓮

內鮮友愛會 會長 大阪府吹田町八九一 **黃七成**

大阪市旭區新森小路町三二一 今福協風會 指導員 **崔又奉來**

昭和生命相互會社 大阪第一支部 外務監督 **朴盛和** 自宅 大阪市西淀川區浦江上二丁目二〇番地

大阪市旭區今津南町一五一八 洗濯機具大阪販賣所 **キング洗濯屋**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四丁目七一 **金惟珉**

大阪府豊中市大字庄田村 土田牛乳店 支配人 **大橋秀吉** 本名 **梁在淑**

大阪市東成區深江町五丁目一三八 再生ゴム底製造卸商 小倉足袋ランニング **金鍾商**

大阪府下中河內郡布施町太平寺 **橫山工場** 洪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荒川九〇四 韓 品百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太平寺 李壽九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菱屋三五五八 西洋洗濯 **福屋本店**

傳動用具一式 建築用附屬品 諸金物 鐵材 金屬部 大阪市外布施町荒川四七 **富田製作所** 主 鄭宗文

大阪市東成區北中道町一丁目三四 土木請負 人夫紹介 大同土地住宅代理店 **富田組** **尹子鉉** 電東 一五八六

大阪市東成區大今里町二二七五 **向鮮館** 金瑩

大阪市東成區北中濱町一丁目四三 西洋洗濯 **大德舍** 朴漢周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三軒屋一一五一 **金漢獄**

大阪市東成區深江町一〇九一 酒類雜貨 味噌商 徐本琭

大阪市東成區深江町東五丁目三一 **ファスナ製作所** 許洪

大阪市東成區大今里町南三 朝鮮料理 **榮州館** 鄭錫守

朝鮮料理 支那料理 **大阪館** 主 **曹圭東** 本店 府下中河內郡布施町東足代四五三 支店 阪急線富田驛前半丁五 反田

大阪市西成區旭通七ノ四 **共成造花製作所** 主 梁寬杓

京都

京都市伏見區深草大龜谷(佛國寺) **天王山佛國寺** 住職 **鈴木皓滋** 總代 金斗守 金炯弘 金克祚 崔相祚 李銅柱 姜桂祚 姜舜瑞 卓在瓚 朴順圭 辛泳職 金炳琪 朴鴻圭 朴鴻祚 曹龍先 朴碩培 金赫祚 裵漢相 姜渭祚 趙性安

原籍 慶北漆谷郡枝川面三石洞 現住 京都市中京區壬生相合町五 (電本三四〇五番) 友仙、機械 シゴキ、シメリ 萬蒸、水洗 **丸井工場** 主 金桂石

問屋 1、名古屋味噌特約店 2、丸カ醬油特約販賣 3、唐からし製造販賣 4、明太魚卸賣 5、海陸物產委托販賣 **金森商店** 主 金鍾完 書記 孫亮秀 營業所 京都市中央市場第十部前 電話下八一二〇番(呼) 工場 京都市千本三條西入南下ル

原籍 慶北善山郡高牙面鳳漢洞 京染 蒸業 **金永秀** (上田秀一) 工場 京都市松原千本西入下ル 自宅 京都市松原新千本上ル

原籍 慶南晉州郡晉水面勝內里 酒 味噌 醬油 海陸物產 明太卸賣 唐からし粉 其他新炭 **勝山商店** 營業所 京都市中京區壬生下溝町十七 出張所 京都市下京區吉祥院新田一ノ段町堤外 電話本局② 四二一九七番(西田)呼 電略(カネキヨ)又ハ(キヨウ) 振替口座京都三三六四〇番 主任 **許萬奎**

原籍 慶北漆谷郡仁同面居依洞 京染 蒸業 **郭敬鎬** 宮川良助 第一工場 京都市壬生川五條上ル (電下八一〇三番) 第二工場 京都西大路佛光寺西入 (電本二七九二番)

京都朝鮮人勞働親和會 京都總本部 會長 **柳錫烈** 自宅 京都市右京區桂淺原町三十九 電話桂二五三番 事務所 京都市左京區方面會館 電話⑧上六一〇〇番

古物商 **洪泰裕** (有田裕) 現住 京都市下京區東九條山王町一 原籍 慶北榮州郡浮石面北枝里

京都市右京區山之內北ノ口町一八 **朝鮮佛敎 京都布敎所** 布敎師 鄭東熙

京都市伏見區雁金町七一四 銅鐵商 **江島商店** 主 文仁基 電伏見一九五〇番

特許 旭泥除代理店 自轉車用 泥除 カバー サドルカバー ハンドル手袋 製造業 **秋山三郎商店** 京都市下京區七條上之町三 秋仁鎬 (各地方取賣店募集)

陶化學區會議員 **金斗守** 下京區東九條岩本町三〇

右京區梅津學區會議員 **楊秉淇** 右京區梅津上田町五九

朝鮮海產物商 **鄭東欽** 京都市中京區西之京南原町一五

京都市右京區下佳吉町三二一 親和會京都本部 副會長 **吳海根**

共榮會京都 理事 **森田泰輔** 崔景鎬 京都市中京區千本通松原上ル東入 電本六一九二番

京都市西大路小路西入 水道 衛生 ポンプ 暖房 ボイラ パイプ 水洗便所 一式 **吉村商店** 電本六七五番 在京南鮮友會長 俞凡俊

原籍 慶北義城郡丹村面細村洞 現住 京都市右京區西院五條上ル東側 (電下三七一一番呼) 風の手絞り 染分加工業 **藤原政次郎** (李東雨)

京都市西七條衣田町一四 **三山堂乾材局** (振替京都二二三五番) 吳在書

原籍 慶南固城郡永吾面省谷里 京都市下京區西九條比永城町一一 朝鮮海產物 醬油 唐辛子 **禹萬龍商店** 中田龍一 電下六二六四番

京都市下京區八條通高倉町一 和漢藥種貿易 卸小賣商 **達宣堂乾材房** 主 徐達根

原籍 慶北迎日郡龍岩面大興洞 京都市下京區西九條柳內町九二 朝鮮海陸物產 醬油 淸酒 고무신 鍮器 **金太成商店** 金井裕三

京都市右京區嵯峨北堀町一〇 胃腸 神經 心臟 其他諸病 漢藥部 **時雨堂藥舖** 金明珠 (振替京都三〇四番呼)

京都市下京區上鳥羽町十一 電下四六六四番 婚禮 日用 各種裝具 一式 鐵物 及 セルロイド ゴムバンド 其他雜貨一式 **金謙商店**

原籍 慶北漆谷郡仁同面居依洞 京都市蛸藥師坊城東入南 友仙、機械 シゴキ、シメリ 萬蒸、水洗 **高山蒸工場** 主 李達出 (電本五七七七番呼)

京都市下京區中堂寺北町三八 古綿 人毛 古綿洋紙商 **鄭萬燮** 電西陣七二三三番 自宅 中京區西之京原町一四

京都市東新道松原下ル 自轉車 中古自轉車 專門 **川島自轉車商會** 盧斗孝 (各地方特約店募集)

京都市下京區吉祥院宮ノ前町三八 朝鮮海陸物產 明太 ゴム靴 其他日用品 乾物 味噌 醬油 卸賣 **鄭昌台商店** 杉本幸一

京都市伏見區竹田七瀬川町十一 京都相和會 會長 **吳平泳**

原籍 慶北漆谷郡架山面下板洞 京都市下京區中堂寺西田町二 友仙 水洗 蒸業 **吉田源三郎** 張泰書

京都市下京區東七條西町二番地 米穀商 **河相權**

原籍 慶南宜寧郡芝正面馬山里 現住 京都市下京區東九條柳下町四四 水洗業 **中村淸吉** (李桂周)

便所汲取 淸掃衛生 事務所 京都市右京區西院上山之內町 出張所 京都市中京區西ノ京道町三一ノ內町一ノ二 **關西共信衛生社**

京都市中京區西之京北小路町二九 和漢藥商 **洪鳳周**

京都市右京區下桂春日町三一 子供服 各種布木 其他一式 **大邱商店**

京都市下京區須原通上之町七番地 帽子製造業 **吉田實** (洪仁吉)

原籍 慶南昌原郡鎭川面城里 京都市下京區東七條川端町三 乾物 醬油 味噌 卸賣 **河相云商店** 金子相云

原籍 慶南晉州郡東面德川里 京都市下京區東九條宇賀邊町一〇 硝子商 **孔源達商店** 大海明達

現住 京都市下京區岩本町五 營業所 京都市下京區北河原町五 銅鐵商 **趙興金商店**

原籍 全北金堤郡白山面上里 現住 京都市下京區山王町五一 朝鮮料理 **洪新亭** 主 洪達振

拍物商 **元達** 現住 京都市下京區東七條屠彫町七 原籍 慶北漆谷郡仁同面仁義洞

現住 京都市下京區東九條柳下町三 **八百長商店** 主 林長春

京都市中京區蛸藥師通東新道西入 シルク シゴキ 萬蒸 專業 **橋本蒸工場** 李浩珍

高敞

全北高敞郡廳 郡守 **崔學洙** 外職員一同

高敞面長 申基準 外職員一同
雅山面 職員一同
古水面長 朴成根 外職員一同
新林面長 林魯泰 外職員一同
興德面長 朴桂暢 外職員一同

全北高敞 **高敞初等學校教員會**

全北高敞郡高敞面邑內里 **高敞警察署**

星松面 職員一同
星內面 職員一同
富安面 職員一同
茂長面長 陳宇坤 職員一同
海里面 職員一同
上下面 職員一同
心元面 職員一同

財團法人 **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長 理事

全北道會議員 **陳萬秀**

高敞郵便所長 **鈴木保治**

興德郵便所長 **淺野喜八郎**

高敞郡產業組合

高敞郡邑內里 **高敞醫院** 院長 徐炳南 電話二七番

高敞郡邑內里 **海東藥房**

高敞郡高敞面邑內里 洪淳熙

全北高敞郡邑內里 昌和堂藥房 主 朴仲鎬

高敞郡邑內里 京南商會 主 鄭相煥

高敞郡海里面 **李圭爾**

高敞郡星松面三合 鄭泰煥 **鄭東煥**

高敞郡海里面下蓮里 海東金融組合支所 理事

高敞郡新林面法止里 **金百洙**

高敞郡富安面水央里 崔南烈

高敞郡心元面月山里 陳泰鉉

高敞郡心元面弓山里 閔丙燮

高敞郡茂長面江南里 安東官

木浦

木浦旭町五番地 **共榮鐵工所** 電話一〇二〇番

木浦府幸町二丁目四 各種染料 **吳栽均染料店** 電話八五九番

姜成奎

木浦府大正町二〇番地 **高麗商店** 主

水産咸南大氣焰

鰮生産一千餘萬圓

其中製造高만八百萬圓巨額

比前年百五十萬圓增

【咸興】 함남도 운유비수산조합에서 정계한 작년중 도내 정어리의 총생산액을 보면 어획 제조고를 합하야 일천이백삼십팔만륙백륙십팔원인 미증유의거액으로 제작년보다도 오히려일백오십이만원의 격증을뵈엿다

어획(漁獲)고는 일백륙십사만사천구백사십구쯧(樽)으로서 일쯧 평균 이원오십전 (제작년에는 이원) 으로 환산하면 사백십일만이원이며 온유(鰮油)는 일백이십삼만팔천오백구십칠관(罐)에 일관삼원오십전으로 계산하면 사백칠십이만삼천오백이십이원 온박(粕)은 삼십칠만이천여표(俵)로서 일표에 구원오십전식 삼백오십삼만사천사백이십사원이나된다

어획고에잇서서 가격이 놉흔 관계로 제작년보다도 오십만원의 증가를 뵈이며 제조고(製造高)에 잇서서는 해마다 발달하므로 전년보다도 일백이만원의 대격증을 뵈우는데 온어(鰮魚)함남의 전도는 갈수록양양한배잇다한다

平壤地方에猝寒

水道故障激甚

【平壤】 희유의한파중에서 새해를마지한 평양지방에도 십일부터 영하륙도내지 십칠도의 한파의 뭇적을 바더대동강은 굿게어름으로쇠를잠거버려 "스케이터ー" 들과 "자판다시전군"들의기쁨을 볼수잇는반면에 수도전(水道栓)이 얼어부터서 매일이백건에가가운 수도사고가 일어나고잇서서 부수도과에서는 울고잇다

천연빙(天然氷) 채취업자들은 채취원을제출하고 빙질(氷質)의 검사를 가장급속한기간내에 해달라고요구햇는데 채취량은 작년과가티 이백만관이며 이십일경부터나 채수를 시작할것가타고한다

飛躍的의平壤貿易

二千萬圓臺突破

平壤稅關開設以來初記錄

但輸移入超過는依然

【平壤】 작년중의 평양무역은평양세관이래 처음보는 최고기록을 지어노앗다

평양세관지서에서 조사한수자에의하면 이천만원을 돌파하기 백오십일만칠백일원으로 세관지서 개설십여년동안 첫기록을 보엿다

이제이를 내역해본다면 수출입 오백구십삼만륙천구백십오원 사백륙십만륙천팔백팔십삼원 수이출(移出)십만사천륙백사십팔원 이입(移入)일천팔십사만이천사백오십일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수출에서 사할 고무화 양말등 제품의 수출증가로 칠십칠만오천팔백륙십팔원의 평창을 보앗고 수입에잇서서는 원당(原糖) 조(粟) 옥수수등의 수입 증가로 백륙십팔만구천이백이십륙원의 평창을보앗다

또 이출에서는청주(淸酒)의이출증가로 일만오천칠백륙십구원이 증가한반면에 이입에잇서서는철물(鐵物)의 감퇴로 륙십륙만칠천이백구십일원의 감소를보앗다

그러나 여전히수출 이출액에 비하여 수입과이입의 수자는엄청나도록 차이가커서입초(入超)를 면치못하고잇는상태이라한다

多年間宿望이든

光州農校移轉實現

學級도增設코增募

【光州】 광주농업학교는 도청소재지 갑종농업학교로서 다른곳학교와 달리응모자 칠팔백명중불과오십명내외의 모집으로매년 신입학고에는 입학난이더욱심하든바 학교당국자로서도 다른도 교사와또는 농업실습장등이 협착한관계로 아직실현을 못보고잇는만큼 일반시민과가티 학교이전을 요망하야오든중 신년도부터 학급증가를따라 교사이전을하게되얏다는바 현재교사과지급 농업실습지등은 총면적이삼만오천평에 불과하나 새로이전할 면적은교사과지 농업실습장또는 산림까지 약십만평에달한다는데 후보지는 부내농성정(農城町)부근이되리라하며 이전비는약삼사십만원가량이라한다

그리고 명년도 예정인농업실습학교를 팔교를증축하게 되리라한다

李仁三獨白劇

二十五日夜於白民館

本報讀者優待

【平壤】 독백극(獨白劇)의 권위자 [illegible] 뷰」하여 조선신극계에서 획기적 새로운성과를 거두어슴은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이번평양예술좌에서 리씨를 마지하여 씨의 독특한 본령인 『독백극』을 이십이일오후일곱시부터 백선행기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거행하기로 되엿다 동백극의 예제는 다음과 가트며 본보독자에게는 우대권을증정하여 할인(割引)을 하기로되엿다한다

◇獨白劇의題目

一、쉑스피어作 하무레트

二、몰리에르作 守錢奴

三、체홉作 白鳥의노래 狂人

平壤名勝一週

遊覽뻐스認可

【平壤】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문화를 탐구할수잇는 대성산(大聖山)과 락랑(樂浪)의 고적을 파람할수잇는 오야리(梧野里)등 유람지를 순회할 유람뻐스는 부영으로하기로 되엇스나 예산관계로 평양부가 그경영권리를 포기하자 이권리를 획득하고자 민간측에서는 일시 소동을 일으켯섯든바 십일일로 『킹택시』에 인가되엿다

八名의女密輸團!

金塊一貫을安東縣으로密輸

一黨中四名新義州署에

【新義州】 지난삼일밤 부외위화면북하동(威化面北下洞)에 어떤 려관에 묵고잇든 평양부경제리(鏡齋里)이백이십륙번지 김괴실(金)이라는 여자를 그곳주재소원이 파출소로 다려다가 취조한결과 금괴(金塊)사백오십돈중을 안동현에 밀수출한후 집으로도라가든것이 판명되자 그녀의 자백을 따라 평양부서성리(西城里)륙십구번지사는 홍관선(洪官善)(二一) 동 경제리(鏡齋里)이백이십륙번지 차씨(車氏)(二一)女등세명과 공모하고 작년십월부터 금괴한근이상을 안동현으로 밀수출한것이 판명되엿슴으로 신의주서에서는 김형사 (金刑事)형사등 세명이 평양에 출장하야 전기공범자세명을 체포하야가지고 도라왓슴

데친중의밀수출한 오천여원은 안동현 만철병원(滿鐵病院)부근 사는김모(金某)라는 중개인이자 허가와 결탁하여 금괴를 팔어가지고 도라오든도중 가짜형사로 변장한후 전이가지고잇든 오천원을 사기하여먹은사실이 취조중에 판명되엿슴으로 신의주서에서는 범인을 체포코저 각처에수배중인데 밀수사건의관계자는 아직도 몇명이 될지 판명되지못하야 전기공범자세명을 체포하야가지고 도라왓다고한다

밋지못할商店員

店돈四千餘圓을橫領逃走로

海州署各處에手配

【海州】 해주읍동영정(海州邑東榮町)사는 윤근영(尹基永)(二二)씨경영의 서탄상 해영상회(海榮商會)점원 가튼동영정일백사십삼번지 박성환(朴成煥)(二二)은 작년십이월십일부터 동십일일까지의사이에 전주주의의 명령에의하야 거래상점인 경성삼화상점(三和商店)에 송금할돈 삼천이백원과 및 해주부내에서 징수한 석탄대금 팔백원합계사천여원을 횡령해가지고 종적을감추어버렷다

전긔피해자 윤근영과 박성환은 친척인관계로 사사로히 행방을차저 리지안코 도저히 찾을수가업슴으로 드듸여단념하고 수일전 소관해주서(海州署)에 고소를제긔하여 그서에서는 방금각지에 지명수배를 하고 범인체포에 활동중인데 범행후상당한시일이 경과되엇슴으로 그동안국경선을 돌파하야 주방면으로 탈주한것으로 판단되다고한다

南旨川大堤防築造

陳情委員再派遣

慶南道廳과總督府에

【釜山】 루보-아프로 대남지(大南旨)건설에 잇서서 당국이 계획한다는 다만 백이십호가량만 구제하게되는 소범위의방수제(防水堤)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므로 주민일천오백여호가 일제반대하는 반면에 대방수제(大防水堤)하천공사를 하여달라고 필사적으로 진정해오든터인대지난 십일에 도나시 진정위원의 미의인 추길좌태랑(秋吉佐太郞) 권연수 김정호 식월정(植月正浩、植月一、栃尾宜人、秋吉佐太郞)등제씨를 파견하야 경남도청과 총독부당국을 방문하고 진정키로되어 당일 남지자동차 (南旨自動車部)부에는주민삼백여명의 성대한부탁과 전송이잇섯다고한다

陳情委員에게

激勵電報輻湊

별항과가티 경남 창녕군 남지하천(南旨河川)진정위원으로 권연수(權淵水)씨등 일행에게서 출발후 곳 파견한후 그 전한 속망을받처 오전중 진 [illegible] 이일인 지난십일을 [illegible]

暗葬하든喪興軍과

洞民四十名亂闘

迷信등에생긴慘劇

【豊川】 현문미신에취해서 멋해전죽은자의 안해의유해를 공동묘지에서 발굴하여 소위명당이라는산을 사가지고 암장하려다가 상여군이십여명과 명당이라는산근방의 동민사십여명과의싸움이 일어나서 쌍방의중경상자가 되엇슴으로 피비린내나는 살인참극까지 이르킨 사건이잇다─

금화군 북리면대촌리(金化郡北里面大村里) 조고종(趙杲宗) 이란 사나이가 멋해전죽은 자긔의안해를 그곳공동묘지에 매장하여두엇든바 어떤사람의소개로 동면보더리(同面保德里)에잇는 유사긔범보(柳思己範保)의 소유산을 사가지고 그곳에 명당이라는산을 바로 그곳으로 이장하고 살 [illegible]

戰慄·强盜의跋扈

主客八名脅迫

現金三十圓奪去

延白에三人棍棒强盜

【海州】 지난십일밤 오전한시경 연백군유산면 일두리독암동(延白郡金川面日斗里獨岩洞) 김명호(金明鎬)씨방에 세명의강도가든 러가서 곤봉으로 주인과마츰집에잇든 사람들을 협박하고주인 김명호씨외 여덟명으로부터 삼십륙원을 강탈해가지고 다러낫다는데 이급보를 바든연백서(延白署)에서는 룰셀룡엽는 비상경계선을 느리고 범인체포에 활동중이라한다

咸州郡에도强盜

【咸興】 지난십일밤오후여섯시경 함주군귀곡면 후주령(厚柱嶺)에 세명의강도가 나타나서한 훈시장으로부터 집으로 도라가든 고잇는 신흥군가평면(新興郡加平面)에사는 생선행상 리일봉(李)을 란타하여 혼도시킨후 가지고잇든 돈사원가수를 빼아서가지고 어데로 다러나고 말엇다

이급보를바든 신흥경찰서에서는 즉시 비상소집을한후 각방면으로 범인을 엄탐중이다

載寧三江面에도

三人組强盜

現金五十餘圓을奪去

【海州】 지난입일오전다섯시경 재녕군삼강면 은산리(載寧郡三江面銀山里)백이십삼번지 손형진(孫亨鎭)(三七)씨집에 세명의 강도가 침입하야 한명은 옷방에서 손형진의맛며누리를 붓잡고 한명은 기리 한자가량되는 식칼로 또한명은 기리여섯치가량되는칼로 각각 손형진의안해 오경식(吳敬植)을겨누면서 『돈을내지안흐면죽인다』고 협박한후 현금오십일원오십전을 강탈도주하엿다

재녕서(載寧署)에서는 그전말을 알고 백서판내에 나타낫든 세명의강도단의 소위가아닌가하여 긴장해가지고 황해도보안과에보고하는 한편 재녕경찰서원으로 그리정치에 비상경계진을 치고 범인체포에 활동중이다

모히患者打鑿中

賭博團에鐵槌

【木浦】 지난십일 오후다섯시부터 동일 열두시까지 목포서에서는 전서원을 총동원하야모히 중독자를 일제검거 한결과 용의자십칠명을 걱거하엿든바속담에 남의다염이엇다가 벼락맛는다는격으로 부내 창평정타변오(昌平町遠丙午)방에서 칠팔명이 모혀 안저 도박을 하고잇든판에 의외의 습격을 바터 일망타진을당하엿다는바 모히환자는 아프로도 연부자가 만히 잇스리라고한다

대구서에서는 방사저으로 수사를 거듭중이든바 이압헌 사실을 모르히 탐사하야 수하기 어렵히 부내에 출동하야 운흥 회사등에 출하야 오─바만 절취한 범인이 대구서 형사대는 부내 각처를 [illegible] 터밧싱ー 소화교부근 삼릉자 이십삼번지 배홍구(裴洪九)(三一)란소년이 시가이백여원되는 오─바를 가지고와서 저당하라는 것을 형사대가체포하야 취조한결과 오─바절취만 엄네건 피해액이 일천사백여원이라한다

이전은소년는 부내중국료리집을 빈번이출입하면서 료리집자와정을통하야 오든중 최근에 잇서서 돈쓰기에 궁하야 이와 가티대담한행동을 한것이라한다

惠山鎭에大火災

製粉工場等四棟全燒

損害二千三百餘圓

【惠山】 함남에 래화이건─구일오후여섯시오십분경 혜산읍혜산리(惠山邑惠山里) 김경수(金)의집에서 불이이러나서 저분실(製粉) 제미(精米) 기계(機械)등 제거(製造)공장등사동(四棟)답 불태우고 동여덟시오분에꺼젓다 원인은 기계에화발유(揮發油)를넣기다가 등불에옴겨부튼것이며 손해는 이천삼백여원이나된다

男便의뒤를따라

少婦마자自殺!

【釜山】 경북 안동군 풍산면 소산동(素山洞) 김철기(金七生)(二一)라는 청년은 시집에서 일가족상인이 매우 화목하게 지나오며 생활에도 여유가 잇서오든바 남편은 작년십이삼십일일에 이세상을 떠나고말엇는데 지난칠일 오후십시경에 처변씨는 가족의 눈물피하야 자긔남편이 거처하든 공가에가서 목을매고 남편의 뒤를따라 자결하엿다고한다

長篇小說

그의自叙傳 【22】

長白山人 作

熊超 畫

어린적 (二二)

나는 애정이 누이를 조부님께 다려다 두고는 방랑생활을 하엿다. 과집에 예미예비 다 잡아먹은 열한살 나는 활방기 활인 아이며서, 머리와 옷에는 이가 끌는 아이며서─이것은 결코 어느집에서나 환영받을 손님은 아니엇다.

나는 외가에도 갓다. 외조모도 없고 외숙모는 돌아갓는데다가 장성한 두 아들을 다 와세운 하로 좋은 없이 다 빠저가지고 울증으로 릉청거리 하고 잇서서 울지도 웃지도 말한 마디도 아니하엿다. 다만 맛아들이 나를 불상히 여겨서 머리도 빗겨주고 버선도 기워주엇다. 그러나 한 집에 한 달이상 부처잇기는 어려워서 나는 외가집을 떠나서 우리 액

문 이십여명을 다리고 그산으로가서 매장하려할지음 근방에 사는 두어명의 청년이 달려가 동민이 되처여정이생기자 그부락에서는 로소사십여명이 몰키어 작대기등을 가지고 아우성치며 그곳에달려가 암장하려는 인부들을 란타하게되여 쌍방은 큰싸움을 이르켯는데 방금 가진은 상두군들의 형세가 불리케되자 모진매를맞든 상두꾼중 조판수(趙判秀)(三三)가 가지고갓든 식칼을 휘두르는바람에 동민보더리 김두섭(金斗燮)(四二)과 김두현(金斗鉉)(三二)두명이 절리여 김두현은 그다음날 오전 두시경에 절명되고 김두섭은중상을 입엇는데 가해자는 방금 경찰에 인치취조중이다

내에서는 가장 잘 살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구들이사는 재당숙 집으로 간다. 이집에는 노쳐고 잇고 종도 잇고 아직도 속모들이나 누나들은 대문밖에를 안 나서는 생활을하고 잇엇다.

내 당숙은 사랑문을 열어 놓고 앉어서 전비꽤를 하엿고 가운데 아자씨는 선생이엇고 작은 아자씨는 접장으로 서전을 읽는 새서방님이엇다. 그리고 백(栢)이라는 내 삼종제는 나와 동갑으로서, 이빛난 가문의 외아들로 귀엽을 받고 잇엇고, 또 파년된 아주머니며 누나들도 잇어서 퍽이나 유쾌한 가정이엇다. 행복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여서 이 집에도 걱정하나가 잇엇으니 그것은 큰누나가 고칠수없는 병으로 시집갈 기로 세월을 보내는것이엇다. 나이가 지나도록 뒷방에 가만히 앉어서 바느질하기와 책보기니 이런 책들은 다 이누나의 것이엇다.

창선감의록이니 구운몽이니 하는 책들은 다 이누나의 것이엇다. 이 누나는 인연으로 언문책을 많이 얻어보앗다 사씨남정기로 세월을 보내는것이엇다 나는 이누나 인연으로 언문책을 많이 얻어보앗다 「서어, 너도 이런책을 지어보렴으나」 하는 말도 이누나에게서 처음들엇다.

서(徐)이란 내 이름이다. 다른 일갓 사람들은 내 아명인 수경을 부른지마는 이 누나는 나를 서이라고 불러ㅅ다. 그것이 나를 대접하여주는것 같아서 기뻣다.

그 무덤에 가서 잔디닢이 포릇포릇 나오는것을 보고 어머니가 울면할 때며, 장례 나갈 때며, 무덤에 울때에, 이러한것을 아름답게 서 사시적으로도 읽은것도 잇엇는데 암만해도 생각이 나지아니한다.

또 내 작은 재당숙들이 여자들의 청을 들어서 삼국지나 수호지를 진서책대로 조선말로 번역해 읽어주엇다. 나는 그것이 무척 부러웟다.

아모러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문학이라는것에 접촉한것이 여기서라고 볼수잇다. 나는 조고마한 이야기책 하나를 지어서 큰누나에게 보엿스나 칭찬을 듣지 못하엿고 또 내 삼종제와 함께 노래와고풍한시를 짓기를 내기햇으나 언제나 내가 젓다. 백이는 무엇에나 나보다 재주가 승하엿다. 그러나 내가 백을 대할때에 제일 부러운것은 그의 꾸겨짐없이 쪽 펴인 천진난만한 성품이엇다. 나는 부모없이, 집없이 남의 밥을 먹게되어서 그런지 벌서 눈치꾸러기가 되어잇엇다. 나는 어린 마음에 그것이 깨끗지못한것임과 궁상인을 알아서 퍽 부끄러웟다.

『나는 왜 백이 같지못한고』하면 퍽 슬퍼엇다.

나는 이집에도 오래 잇지는 못하엿다. 어떤 때에는 책한권을 읽고는 떠나고 어떤 때에는 무슨 노엽이 나서는 저때도 안 먹고 떠낫다.

朝鮮內會社現況

本店會社四千八百六十四社 公稱十一億、拂込七億

株式組織만 千六百社

昨年末調査

公稱十億、拂込六億

支店會社는 百五十四社

公稱十一億、拂込八億

事變、日政策의 新政策下에잇는 朝鮮은 大資本의 新投資로 膨脹되어가는이때에잇서 全朝鮮의 事業資本이 果然얼마나한가를 보아야할것이잇는지 京城商議調査에依하야보면 大體如左하다

◇京城商議調査=十一年末現在朝鮮會社現況은 如左하다

▲朝鮮內에 本店이잇는會社

	社數	公稱資本金(千圓)	拂込資本金(千圓)
株式	一、五五四	一、〇三四、[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二	一、〇三四	[illegible]
合資	二、[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一、一三六、三三八	[illegible]

即朝鮮內에 本店이잇는 會社의 會社總數는 四千八百六十四社로서 公稱資本十一億三千八百

▲朝鮮內에 支店이잇고 朝鮮外에 本店이잇는것

	社數	公稱資本金	拂込資本金
株式	一二五	(一、一六六、一四四千圓)	(八四四、〇〇九千圓)
合資	一九	一五、三〇四千圓	一五、三〇四千圓
合名	一〇	四、六〇二千圓	四、六〇二千圓
計	一五四	(一、一八六、〇五〇千圓)	(八六三、九九七千圓)

佛로表示된 外國會社四

資本一億千百萬弗

二十一萬八千圓、拂込 大邱九千三百十六萬九千圓인바 其中株式明細外에 一千五百九十四社、公다。

朝鮮內에 本店이업시 朝鮮內에支店이잇는會社로서 資本金이 弗로表示된會社는 다음과갓다

▲째·메가스·콤파니(차이나)리미테드=石油類及이에 關한商品賣買=本店은 北米델라웨아州윌민톤市、支店은京城南大門通五丁目一 公稱資本五百萬弗拂込同

▲스탄다드·뷔큠·오일·콤파니=礦油賣買=本店은紐育市뿔로도위이街、支店은京城義州通一ノ

▲싱거·소잉크·미신·콤파니=미싱機械製造販賣=本店은米國뉴저시州 支店은京城貞洞九 公稱資本百萬弗

▲오리엔탈·콘소리데잇트·마이닝크·콤파니=鑛業=本店은米國、支店은 平南雲山郡北鎭面大楡洞 公稱資本金五百萬弗、拂込同

即總資本이 一億一千百萬弗로서 스탄다드의一億弗이 最大이며 징

未會有土木景氣 二億凌駕豫想

裏面엔材料高、勞働力不足으로 業界는採算惡化念慮

今年의 朝鮮土木建築業界는 官營民間企業을 合算하야 二億圓을 凌駕할것이 豫想되어 未曾有의 土木界黃金景氣가 謳歌되는데 業界自體로서는 인풀레本格化한 物價高의 脅威가잇고 勞銀高 勞働力不足等이잇서 所謂豐年凶作即表面的活況에 不拘하고 業界의採算惡化를招致하리라는 念慮가잇다

一、土木工事材料騰貴=鐵材를筆頭로세멘트 木材其他諸材料品의騰貴가顯著하고 그市況의前途는豫斷을不許한다 이미民營工事等으로는 昨年의契約으로 材料費二、四割高인것도잇다

一、勞働力不足勞銀高=勞働力의不足은 當然豫想되고 이미職人의勞銀과如함은 二割乃至三割高를招致하야 今後는 一般人夫의勞銀高도 豫想된다

京電增資內定

一萬株를公募

京城電氣의增資는 八百萬圓을 增資하야 二千三百萬圓의 資本金으로하기로 內定하얏는데 增資株는 舊株二株에對하야 一株를配定하고 殘一萬株는 公募키로되엇다 右增資案은 一月二十七日의 定時總會에 附議하야 四月頃公募하게될모양이다

朝銀의支店 三個所를物色

朝銀에서는滿洲業務分離後 朝鮮內의支店網充實을期하고 第一步로서 新義州支店新設을보앗는데

一、現在朝鮮銀行의 支店이업는 道 黃海道及江原道

一、道廳所在地로서 支店이업는地及開港地同樣

의諸點으로候補地를 物色中인바 本年內에는 三、四店程度의新設을行할方針이라한다

朝銀北平支店 廿二日에開業

朝鮮銀行의 北平支店新設은 準備其他關係上遲延되엇스나 一月二十二日開業키로 決定、支配人은 天津齋藤支配人의 兼任、關們出張所長이던 荊場氏가 支配人代理로서 現業에 當하리라고

非指定業者 機會均等主張

四百八十名連署陳情

運送業에잇서 非指定業者로서組織된 朝鮮運輸同盟會에서는 四百八十六名의 連署로『混載扱及責任輸送特割制度를 全朝鮮的으로 擴大할鐵道局方針』에對하야 指非無區別로 機會均等을 主張하고 九日代表者等이 鐵道局을 訪問하고 佐藤營業課長에게 鐵道局長에게보내는陳情書를 提出하얏다는바陳情書全文은如左하다

▲陳情書

吾等 非指定業者는 昭和五年運送合同成立以來 指定會社間에 모든 苦壓과 極度의差別待遇를 受하면서 專心誠意自業에精하고 微力이나마 局有鐵道의 補助機關으로 遺憾업기를 期하고 小運送業界의革新을 圖謀하며 內로는 費用을 省하고 小運送費의 低減에 努力하야 一般荷主公衆의 福利에 寄與하얏다。그런데 當局은 過去의 關係와局部의 偏見에 捉하야 運合後六個星霜을 經한 今日 何等改善이업시 依然히 納然한一營利會社만에限하야 諸權의特權을 附與하고 巨萬의國財를交付함과如함은 公正明朗할昭和聖代의 治政上 잇슬수업는 것이라고 信한다

近近 混載扱及 責任輸送特割制度를 全朝鮮的으로 擴大하리라고 듣는데 其主旨는 一般社會公衆의 利와 便을目的으로 鐵道輸送의 迅速確實化에 잇다지만 本制度는 名을 改善의美에 藉하고 其實은 指定業者의 事業擴大助長策에 不過하야 荷主로서도 一部의 特殊關係者를 除한外는 利用이업는 制度임으로 當局은 本制度를 大衆的으로 取扱하되 其取扱에 잇서서도 指非兩者의 區別이업시 機會均等의 恩澤에 浴하도록 開放함이 最善의 方法이라고 信한다 萬若一步를 讓하야無軌道的指定方針을實施하면 吾

저하는 無辜可憐한吾等 非指定業者에게對하야 一掬同情의淚를垂키를 熱淚로서 御淸鑒을仰한다

米取賣買

昨年中全朝鮮 五千七百餘萬石

總督府商工課調査에 依한昭和十一年中의 朝鮮內米穀取引所의賣買高는五千七百四十七萬一千四百石으로 前年의賣買高에比하야 實로一千六百八十萬二千三百石의增加를示하고 十二月中의 賣買高를보면 三百九十七萬五千二百石으로 前年同期보다 百八十五萬三千四百石의增加인바 六取引所의 賣買高內譯은如左하다 (括弧內前年)

	十二月中	十一年累計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產組數九十三

組合員十一萬五千人

朝鮮의 產業組合은 昭和三年設立된以來 事業의擴大와同時에 漸次組合數及 組合員이增加하야 昭和十年三月末現在의 組合數는 七十二이던것이 十一年三月末에는 九十二組合으로되어 昨年十二月創立된 全北全州의 組合을 合하면 現在의組合數는 九十三에達하고 組合員의數도 十一萬五千人에達하얏다

產業組合의事業으로서는 各組合이 모다 肥料、織物、生絲、綿布等의販賣、購買를비롯하야 其他經濟用品의 販賣購買는 勿論最近은『트럭』의利用等도 漸次增加되고 活躍이顯著한바 就中注目되는것은全北沃溝郡米面의不二農村組合 江原道平康郡平康面의平康組合의 自作農創設을 目的으로한 組合이라한다

罐詰水產組合總會

朝鮮罐詰水產組合에서는 十二日京城 基督會館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토마토팔푸購入에關한件

一、組合幹事改選件

一、積立金還付件

一、諸規定改正

을 附議한 結果 토마토팔푸는前年度의 四萬四千箱을 六萬箱으로 增加하고 大邱大場工場과契約키로 決定하고 組合幹事를總改選하야 ……

寸鏡

○인풀레 景氣의 先驅로 商品暴騰、株式狂騰等 尋常치안흔 이때에

○東洋紡績會社는 全工場三千八百名從業員에게 物價騰貴手當을준다고

○돈이어떠케흔한지 百萬圓의 茶會가 大阪서열리리라한다 貧者가보면 羨望히되엇슬걸

軍需商品界事情

綿絲生產 空前記錄

高級化傾向注目

紡績聯合會調査에 依하면昭和十一年中의 加盟各社綿絲生產高는 一二二六〇七、四五一梱의多量에達하야 紡績史上 空前의新記錄을 示現하엿다。이것을 過去의 最高記錄인昭和八年에 比較하면 四六、六一八梱半의 激增인바 高率操短에不拘하고 如斯히 生產高가激增한것은 本年一月부터 實施된聯合會의 禁止的新錘制限을豫想하고 昨年中에 各社의增錘가百五十萬錘로 未曾有의 數字에 達한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番手別生產高를 前年에比하면 如左히 太絲、細絲共 增加되엇는데 採算關係로 細絲와 太絲의 增加가 顯著하야 二〇―三一番手는 上期의 操短에 依하야 僅히 一千梱을 增加하얏슴에 不過하다 그러나 全體로서 보면 中絲、細絲의著增은 紡績製品의 高級化傾向을反映한것이라하야 注目되고잇다

◇番手別生產高 (單位千梱)

	十一年	前年比較增
太絲	一、〇一五	一六
二〇―三一番	一、〇二七	一
中絲	一、四二六	一三
細絲	一三九	一六
合計	三、六〇七	四六

綿布輸出減退

綿布輸出도 十一年에至하야 逆轉되엇다 即輸出綿絲布同業會調査에 依한 十一年中의 綿布輸出 總額은 二、六九九、九九一、八二三平方碼 金額四八一、六四二、七三三圓으로서 前年에比하야 數量은 一一、二七四、〇二一平方碼(〇、四%)金額은 九、八一五、五八三圓(一、九九%)의各減少이엇다。特히 金額의 減退率이 顯著한것은 輸出商社의 低價賣競爭에依한것으로 注目되는 現象이다 또英印、蘭印、埃及、濠洲等의重要市場中에서 米等의 市場의 減退도 注目된다

株式反落 波瀾一巡

今日의市勢 (十三日)

前場低落

昨後場少押後 今朝寄付에는 거의 大引된市勢는 東新百六十六圓六十錢으로 不變으로 六十錢高 大新九十六圓九十錢으로 六十錢高 鐘新二百十六圓四十錢으로不變、日產八十六圓六十錢으로十錢高、朝新三十圓六十錢으로十錢低、朝取八十四圓四十錢等을 보엇스나 高價警戒에兼하야 商品의一息、外電低等의報에 商勢軟化하야 東新은 百五十八圓九十錢을 低價로 五十九圓丁、大新九十六圓六十錢을 低價로 九十七圓三十錢、鐘新은 二百二十四圓丁의 低價로 日產도 八十一圓十錢의 低價로 朝新도三十四圓八十錢으로 各各 低落大引되엿다。

▲朝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百五十九圓二十錢 大新九十七圓四十錢 鐘新二百五圓五十錢等에寄付하야 同調裡에推移되엿다

大阪株式後休

大阪株式市場은 連日의商盛으로 帳簿整理키爲하야(國債市場을除함)後場은 臨時休會이엇다

押買人氣熾烈

鐘新은十圓押

昨前後場의 大波瀾도 지겨근市勢는今朝에入하야 高價警戒와 商……

세멘트株昂騰

紡績株는 一息商狀으로 足利紡績이 四十錢低인 一八、六이며 紡績이 六十錢低인 一六、六 旭毛織株도 暴騰後一息으로 東京모스가七十錢低인 三三、〇 同新이 七十錢低로 二八、三 東洋人絹이 一圓二十錢低인 一八、五 東京人絹은 四十錢低인 五九、〇 帝國製麻七十錢低인 七一、八 同新이 三十錢低인 一九、一 昭和스가 一圓低인 五八、五 東邦人絹은 四十錢低인 四三、五 其他金鑛株도 모다 二三十錢이엇다 대세멘트株만은 昨日부터 利廻訂正豫想으로 買進되어 淺野는 五十錢高인 二六、八 小野田이 三圓五十錢高인 七六、〇 同新이 七十錢高인 五一、〇 土佐新은 一圓七十錢低인 五二、二 大阪窯業은 一圓五十錢高인 二四、五이엇다

朝取株式賣買 五萬六千九百

未曾有의盛況

株式市場의 大波瀾에依하야 十二日의 朝鮮取引所證券部는 同所創立以來의 大盛況을 보이엇다 即 十二日의 株式은 午後七時三十分까지 立會를 繼續하얏는데 賣買高는 前場三萬八千五百六十枚 後場一萬七千五百三十一枚合計五萬六千九百枚에 達하야 過去의 最高記錄 五萬五百枚를突破하얏다 株式의 手數料收入은五千四百二十一圓으로 同日의仁川米豆部의 賣買高三十一萬七千六百石(手數料收入四千七百十四圓)을 合하면 同日中의 朝鮮取引所手數料金收入은 一萬百八十九圓에達하얏다 東株도 賣買高가百三十萬株를突破하야 創設以來新記錄이엇다한다

實物前場取引

▲에라피이新 [illegible] ▲大日本紙新 [illegible] ▲日華紡績 [illegible] ▲滿洲 [illegible] ▲日本産業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日本鑛業 [illegible] ▲共同 [illegible]

十二月中異動

(單位千圓)

	社數	公稱	拂込
新設 株式(本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株式(支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增資 株式(本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株式(支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拂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減資 株式(本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設會社의數가 增加하엿스나 增資는 ……

市場寸感

(株)……너무도 만히뛰엇스니 한번低落하는것도 當然한일▲그러나東新의押이五圓이나十圓이나?▲鐘新은 이미十圓下押을告하엿스니 다되엇도하다마는▲押目買人氣는 熾烈하야 容易히低落을不許하나 絶對人氣는오히려 警戒거리▲이러한때가第一危險하니 買賣어느쪽으로도 行動은至難▲다만目前에拘泥치말고 大勢를觀察하야 善處함이可……

(米)……株米兩界를通하야 來하든 一陣颶風은 一息의感이엇지아니하다 그러나深入落은 期待키難할모양인걸▲地方農村에는 農倉의入庫가 相當한모양이나 此를一時에賣出하지안코 平均賣出하는光景이므로 滑落은더욱難望▲그럼대로 限은 實米化하는關係上 賣方의 威力도相當하나 그러나丸仁三等이二十九圓四十錢臺를 支撑하고 此以下의反落은容易치 안을모양▲高價에二十餘丁의低落을告하고 그步調가 活躍하지 못하 可知

期米 騰勢繼續 頑强

前場少弛

昨後場阪地三十圓八十錢에 場을止한 共히 二十九圓七十六錢止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七十一錢인 五丁低를 場하고 二十九圓七十五錢인 五丁低로 場하야 一時七十五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七十九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堅保

後場은 二十九圓八十五錢으로 始하야 結局八十二錢에 止하엿다

深入落은難望 軟材薄弱으로

客臘의 米出盛期임에도 又는 新年을迎한 此際임에도 產地의 浮動物은 依然稀薄하야 正米의實際……

大阪三品後場臨休

大阪綿絲、棉花人絹市場은 今日後場은 臨時休會이다

國債 底意堅强 强保

(取引高 [illegible])

▲東京 【東京電話同盟】大倉債도 兩側의 强調와함께 조금씩 保合을 示하고 米貸도 强保合을 示하고 甲五分 二回四分共히 五錢高이며 佛貨도 强保合을 示하고 甲五分共히 實物이 出現하야 六分半高하엿다

▲甲五分利一〇〇三〇 ▲一回四分利一〇〇七〇 ▲二回四分利一〇〇八五 ▲佛貨一九六九〇

▲大阪 ▲甲五分利一〇〇三〇 ▲一回四分一〇〇八〇 ▲二回四分一〇一八〇 ▲佛貨一九六九五 ▲第三五分一〇〇八六 ▲米貨六分半三五八二〇 ▲滿洲公債一〇〇二〇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正米三等 [illegible]
京城白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 [illegible]

◆株

朝取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當限戰의今後

實勢가左右乎

客年十月以來 每納會期에入하야는 반드시 渡米不足으로一場爆發을 示하엿스므로 이번의 納會도 또한 前例와如한現象을 招來하지안흘가한 商談도업지아니하다 그러나 客臘부터는 渡米의 蒐集이 그다지 難하지도 안헛슴으로 納會後期의 暴騰은 期待키 難할모양인 그런데 正米의 實勢를 一考하면 越年後 一、二十錢領圍에서 一張一弛의 保勢를 示할뿐으로 容易히 滑落을 許하지 안흘모양 보면 農家의 緊價賣惜과 떠 …… 하는만큼 正租의市勢가 低落을 不許하지못할것도 事實이다 實로丸仁三等의 昨今市價는 依然二十九圓四十錢臺를 持續하므로 當限亦二十九圓四、五十錢臺의 市勢를 支持하고잇다 그러한關係로 보아서 當限戰의 今後는 正米의 實勢가 左右하게될모양이요 正米의 市勢는 產地農家가 左右하게되므로 結局大勢는 高强한가운데서 時日을 虛費하게될모양갓다

丸大店의曙光

有力한出資로

오래동안 事業不振이든 丸大取引店은 新春을 迎한後부터 有力한出資로 業務를 一層擴張하게 되엇다 하는데 그 大大的活躍을 하는中인데 그 出資主는 京城서 正金商會를 經營하든 黃金顯氏이며 그將來는 英氏로 丸大店의 前途에는 無限한 曙光을 빼치고잇다한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環境支援으로 活動은 株側은 高價利喰。五節頃株反撥되어 又復買氣를보여 田中等이 買進하야 場面은 實買增이나 商品氣하엿다 環境으로 보아 米價는 徹底이라고 最近添田은 買進하야 今朝水野店으로부터 新規買를하고 其他筋氣로부터 押目待의 態度이다 格別히 두려워하지는 안흐나 朝鮮側의 買物이 弘瀨、潮先으로부터 注入되엿다

賣方 地場散漫、中東側
買方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先高期待 底堅

京城閑散

實物이皆無로賣買는거의 成立되지안흐나 先高는强하다 ◉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〇 一等白米二二、五〇

仁川底强

日本內地移出은 不振이나 氣配는 意外底强하야 正租賣物은 거의 皆無로 市勢는 唱價만이오 取引은 全然업섯다 ◉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〇 一等白米二二、一〇

釜山保合

產地出廻一巡模樣으로 市場賣物이 極少하고 賣買는 活潑이라할程度는 아니나 實行은 市況은 底堅裡에 保合

大邱同調

前途豫測難에서 幾分 氣迷인때에 期米의 一息商狀을 엇게 形勢觀望態度에 有하엿스나 氣配는 保合이엇다 ◉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五 一等白米二二、五〇

群山少弛

急激한 値上으로 買方의 警戒人氣가 强하고 期米의 一息으로 氣配五錢少緩이엇다 產地態度는 舊態依然하야 자못頑强하다 ◎三等二九、二〇 四等二九、一〇 一等白米二二、六〇

木浦續高

前途樂觀의 思惑買物이 多少잇고 實需側은 產地買付難으로 高價買향수박게업

海外經濟 十三日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銀行券 十三日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綿油粕·麥粉 ◆綿油沖價 [illegible] ◆阪神粉沖價 [illegible] ◆日本製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實賣高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米 株 仁川 益 京城 金益證券 廣益夏商店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後鎬取引店

玉 期米 仁川 柳泰恒取引店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取組高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出來高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